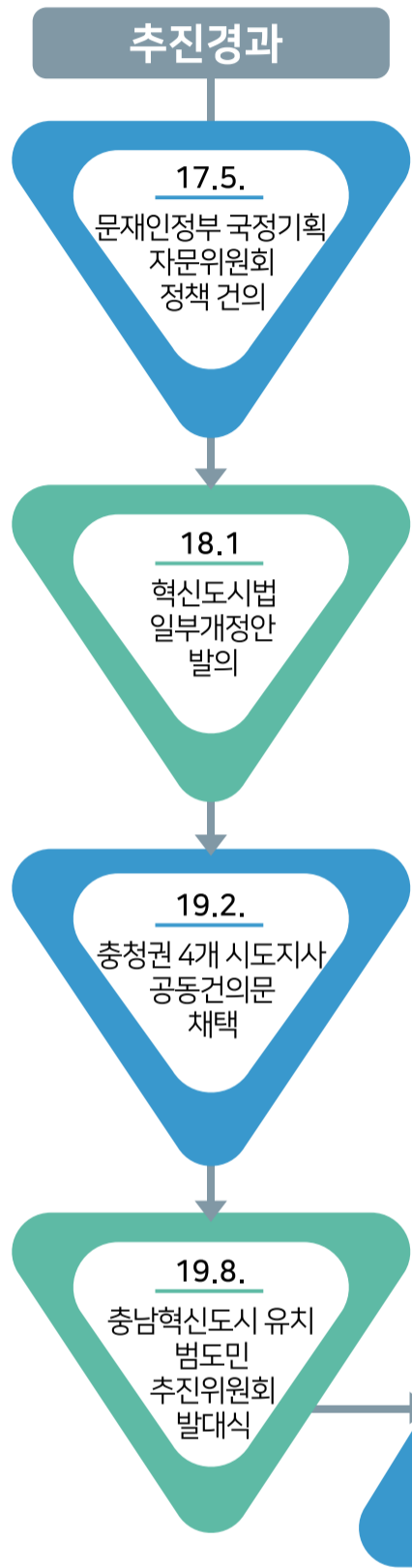


충남혁신도시 지정, 220만 충남도민이 해냈다



균형위 혁신도시 지정안 의결
도민 의지 하나로 이뤄낸 결실
道 제2차 공공기관 유치 집중
국가균형발전·환황해권 중심도시

지역 최대 현안이자 220만 도민의 염원인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됐다.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는데,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의 성장동력을 얻게 되며 새로운 미래가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충남혁신도시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대장정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7년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충남혁신도시 지정 정책 건의, 2018년 1월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2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고, 3월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가균형발전 촉진 공동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충남지방정부회의를 통해 15개 시장·군수도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도민 의지로 만든 결실 충남혁신도시 지정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8일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맹철영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지역 리더는 물론, 지역민 등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며 공감대를 확산해나갔다.

이번 혁신도시 지정은 도민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주며 이뤄낸 성과다.

2019년 4월 혁신도시 지정 촉구 범도민 서명운동이 시작, 같은해 8월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한 결과 2019년 10월 220만 도민 중 절반에 달하는 101만 명이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서명에 참여했고, 해당

서명부는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됐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탄력이 붙었다.

앞서 지난해 9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균특법 개정안) 발의, 지난 3월 법안 국회 통과, 7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며, 도는 국토부에 지정을 신청했다.

특히 이번 혁신도시 지정은 내포신도시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

학생 등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산업구조를 혁신해 서남부지역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그릇이 마련된 만큼, 그 그릇을 보다 알차게 채울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계획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道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10월 30일 신청 마감

충남도는 기존 복지제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이다.

위기사유 인정 기준은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삭감 등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 휴·폐업, 매출 감소 등 실제 사업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종료된 이후 취업한 사실이 없는 미취업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등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소득, 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12일부터 세대주가 복지로 누리집(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30일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사회복지과 041-635-4249, 4245

‘테스형’이 충남 혁신도시에 들어왔다

도정 톨아보기

나혼아 테스형은 시대 모순 함축 사회양극화로 애달픈 심신 달래 혁신도시, 함께 살자는 빅텐트 균형발전 시대정신 담은 큰 그릇

나혼아답다. 그의 신곡 ‘테스형’의 신드롬이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소환한다. “세상이 왜 이래” “세월이 왜 저래”라며 모진 세상을 한 곡조 절창한다. 1980년 초 대유행가 ‘잡초’의 시대 초월 후속곡이다. 강산이 네 번째 바뀔 찰나. ‘잡초’는 시대 감성을 휘저었다.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잡초’. 덧없음의 분출이다. 7080년 압축 산업화 시절, 애달픈 신세 감정 이입이다.

이곡도 ‘테스형’이다. 2020년은 ‘테스형’ 시점이다. “세상이 왜 이래”라고 묻는다. 마주한 건 사회 양극화의 비탈진 언덕이다. 강남특권과 부모찬스는 그들만의 리그. 저출산과 인구절벽, 고령화, 사회 양극화는 시대 모순을 함축한다. 청년들의 낫두리는 애끓는다. “세상은 왜 그래”. 비명이 터져 나온다. 양극화는 메마른 강바닥처럼 썩어 갈라진다.

‘테스형’ 등판이다. ‘테스형’은 시대를 담아낼 그릇이 된다. 노랫말은 가슴팍에 파고든다. ‘천국은 있더냐’. 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라는 카르페디엠. 인생 응원가다. 더는 절망이 아니다. 혼자 살자는 이기심이 아니다. 어우러져 살아갈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노래한다.

충남도가 바라는 바다. 충남도는 함께 살 큰 그릇을 녹여 내고 있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온마을이 함께 키우자는 의미의 아기수당을 지급한

다. 임산부 전용창구, 초중고 무상급식을 전국 처음 실행했다. 청년들에게 임대료 없는 주택 공급은 파격이다. 취업과 창업공간인 스타트업 파크 건설에도 나선다. 어르신과 유공자, 장애인 버스비 무료화는 사회적 약자 배려다. 노동자, 농어민, 소상공인과 더불어 만드는 빅텐트다.

충남 내포 혁신도시는 그런 공동체를 담아낼 새 그릇이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충남의 꿈을 구현할 터전이다. 국가균형발전을 모범적으로 실현하고 환황해 R&D 허브로 도약을 꿈꾼다. 2004년 세종시 건설 당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된 설움도 있다. 이제 명품의 공동체 도시를 만드는데 혼신을 기울이자. 나혼아 ‘테스형’과 충남 혁신도시의 발원은 시대정신에서 흐른다.

/이찬선 도정신문팀장 chansun21@korea.kr

지면안내

- ▶ 충남혁신도시 지정 2·3면
- ▶ 한글날, 충청말 특집 8·9면

충남혁신도시 지정 축하메시지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도민 등 각계에서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곳곳에는 혁신도시 지정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붙었고,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220만 도민의 염원과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도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한 충남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한다.

/도정신문팀

“혁신도시 도민 뽕뽕 뭉쳐 이뤄내 의미”

유태식 충남발전협의회 회장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충남혁신도시 지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100만명 서명달성에 힘써주신 충남도민분들께 감사와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충남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원회의 일원으로써 힘든 여건 속에서 우리 모두가 뽕뽕 뭉쳐 함께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 촉진, 대한민국 중심”

김학민 충남경제정책연구원 이사회 의장

전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며 어려운 고비 마다 더욱 단결하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함께 만들어 낸 경험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충남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연계한 수소 에너지 기반 자동차와 친환경 산업을 통해 충남 전체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국가불균형 해소 큰 도움”

황천순 충남시군의회의장 협의회장(천안시의회 의장)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이었던 충남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도민은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내다 본 큰 결정입니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이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큰 축이 되길 기원합니다.



“충남 광역공동체의 역사적 전기!”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마침내 해냈습니다! 충남 민·관·정의 열망을 담아 뜻과 힘을 모은 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1989대전과 행정 분리되고 23년간이나 더부살이를 하면서도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를 행정도시에 넘기고 고도 속상하고 아프다는 하소연조차 없이 내포신도시 도청 이전 후 10만 인구계획이 2만 대에 머물러도 여전히 ‘충남’이라는 광역공동체의 ‘주인’이 없어보였던 흑역사를 마감하고 비로소 15개 시군은 물론 ‘220만이 충남의 주인이노라!’고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충남역사의 뜻깊은 전기라고 여깁니다.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

이승석 충남사회경제연대 이사장

국도의 균형발전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수도권에만 인구의 50%가 몰려있고, 200여개의 공공기관이 집중되어있는 국가적 초비상상황에서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최종 심의를 거쳐 충남혁신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핵심은 공공기관의 이전입니다.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각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부의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충남의 사회경제가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의 상생을 고민할 차례다”

유재중 흥성YMCA 이사장

혁신도시는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역발전 중추거점 20개 도시 육성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특히 내포신도시 도청이전 후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지역발전 계기도 맞았습니다. 충남도민 모두가 자축하기에 충분합니다. 지방분권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여년 만에 충남과 대전을 끝으로 혁신도시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지역사회의 분권, 지역사회의 상생을 고민할 차례입니다.



“혁신도시 개발 큰 그림 만들어야”

임동규 충청남도새마을회장

혁신도시 지정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도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혁신도시 개발을 위해 우리 모두 큰 그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충남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일찍 시작한 타 지역의 성공, 실패사례를 비교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서해안 시대의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으로 더욱 거듭 날 수 있는 플랜을 도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주지역 3부 통합 독립운동 과제

청산리전투 100주년

김좌진 장군 서거 90주년 기획

(16)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해 혁신의회를 조직하다



김동삼은 이상룡(李相龍)과 함께 서로 군정서를 이끌고 있었다. 이들은 김좌

독립운동세력 통합 항일투쟁

1928년 12월 혁신의회 결성

김좌진, 김동삼, 황학수 등 참여

김좌진은 신민부에 참여하면서 1920년대 만주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유일당운동에 참여했다. 민족유일당운동은 독립운동세력을 통합해 하나의 지도정당을 만들고 전 민족이 대동단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당시 민족유일당운동은 독립운동계의 최대 과제였다. 만주지역도 3부(참의부·정의부·신민부)가 성립되었으나 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이 난립해 있었다. 만주지역에서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3부의 통합이 절실했다.

만주지역 유일당운동은 1927년 4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독립운동단체마다 활동지역과 이념이 달랐기 때문이다. 1928년 5월에 개최된 ‘민족유일당총회’가 결렬되면서 대립했던 세력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김좌진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김좌진은 통합노선을 같이했던 김동삼(金東三)과 함께 세력규합에 나섰다. 김동삼은 김좌진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사이였다. 김좌진은 대한군정서에서 독립군을 양성할 때 서로군정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당시

김좌진과 김동삼 등의 노력으로 1928년 12월 길림에서 혁신의회가 결성되었다. 혁신의회에는 김좌진을 비롯해 김동삼·황학수(黃學秀)·김상덕(金商德)·이청천(李靑天) 등 3부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참여했다. 김좌진은 혁신의회에 참여하면서 신민부 군정파를 해산했다. 기존단체를 해산하고 유일당을 조직한다는 혁신의회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혁신의회는 군정부설립을 목적으로 민족유일당총회조직회를 조직했다. 민족유일당총회조직회는 혁신의회의 결성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김좌진은 중앙집행위원을 맡았다.

그러나 김좌진은 혁신의회를 떠나야 했다. 혁신의회는 군정부를 조직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직된 단체였다. 그런데 혁신의회가 활동기간 동안 군정부를 조직하지 못하자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각자의 근거지로 돌아가 군정부를 세우고자 했다. 김좌진도 활동근거지인 영안현을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었다. 김좌진은 다시 북만주 영안으로 돌아가야 했다. 신민부 군정파를 해산한 상황에서 북만주에서 다시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해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다.

/이상우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도정만평



설인호



내포 충남혁신도시 지정... 새로운 미래 열렸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통과
도정 최고 성과 후속절차 돌입
혁신도시 지정 주역 '도민'
100만 서명 도민 한 뜻

충남혁신도시는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기업 이전·유치 집중
환경해권 중심도시 도약 기대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인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됐다. 지역최대 현안이 자 숙원인 혁신도시 지정은 도정 최고 성과다.

도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도민 의지를 알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찾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했다. 100만 서명운동은 시작 7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했으며, 서명인수만 101만 961명으로, A4용지 7만 5000장 분량에 달한다. 도민,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쾌거다.

도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를 기반으로 내포신도시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환경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경위와 배경, 의미, 향후 절차 등을 살펴본다.

100만 서명 7개월 만에 달성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지난 8일 충남혁신도시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05년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발표하며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세종시 분리·출범으로 인구 13만 7000명이 줄고, 서울시 면적의 4분의 3에 달하는 면적 437.6㎢이 감소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 4조



충남 혁신도시가 들어설 내포신도시 전경

2000억원씩, 총 2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와 충남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잡힌 제2의 혁신도시 추진이 필요하다. 이처럼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했다.

이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된다.

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고, 2018년 1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양승조 지사는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다 충남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절차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올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됐다. 7월 균특법 개정안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도는 국토부에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했고, 지난 8일 균형위에서 심의·의결함에 따라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이뤄지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충남혁신도시 지정은 220만 도민이 힘을 합쳐 이뤄낸 쾌거

라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2019년 4월 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 같은 해 8월 충남혁신도시 유치법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구심체가 되어 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2019년 10월, 100만 목표를 7개월만에 달성하고,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220만 도민의 약 50%인 101만 961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도민 의지를 보여줬다.

내포혁신도시 지정 전환점 기대

충남혁신도시는 홍성·예산 내포신도시에 들어서게 된다. 도는 지난 7월 국토부에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 시 내포신도시를 임지로 명시했다.

내포신도시는 국가적으로 수도권 및 세종시와 균형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하고, 광역적으로는 충남 혁신거점 성장을 위한 최적지이며, 지역적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지 선택 이유로 들었다.

균형위의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의결에 따라 국토부 지정고시 절차만 남았

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다른 시도 혁신도시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도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을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합동 임대 건물을 신축해 공급한다.

공공기관 연계 기업을 위해서는 임대차료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내포 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을 통해 기업 활동을 돕는다. 정주여건은 의료시설과 대형유통시설 유치, 건강도시 조성, 광역도로망 확충, 서해선 복선전철 등 철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개선한다.

환경·연구·문화 공공기관 중점 유치

도는 충남혁신도시 지정 추진과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해 유치활동을 펴고 있다.

공공기관 중점 유치 대상은 ▲환경



100만 서명 목표 달성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환영하는 현수막

기술 ▲연구개발(R&D) ▲문화체육 등 3개 기능군으로 정했다.

환경기술 기능군은 서해안 대기환경 오염 개선과 해양환경 관리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설정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 절반 밀집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국내 최대 해양 유류오염사고 발생, 세계 4대 갯벌을 비롯한 천혜의 해양환경 보유 등 여건을 감안했다.

또 국가기간사업(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위기 극복과 국내 북기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하기 위해 충남혁신도시를 환경해권 주력산업 연구개발 허브로 조성하고, 산업구조 혁신 및 신산업 융복합 등 산업연구개발 공공기관 모델을 구축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토 동서축을 강화하고, 도내 서남부지역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해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충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으로 완성되도록 충남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충남혁신도시 지정!

220만 충남도민이 해냈다!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도, 13개 기업 2848억 투자 유치

천안·아산·서산 등 6개 시군
9개사 공장 신증설, 4개사 이전
823명 고용, 생산효과 3314억



충남도가 천안·아산·당진 등 6개 시군 내 13개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지역사회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등 6개 시·군 단체장, 김철호 티에스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13개 기업 대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MOU에 따르면 13개 기업은 도내 6개 시·군 산업단지 26만 3883㎡의 부지에 총 2848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한다.

이들 기업 중 9개사는 신·증설을, 4개사는 이전하며, 신규 고용 인원은 총 823명이다.

먼저 천안시에는 티에스이와 지엠테스트가 성거일반산단에, 상신종합식품과 현대사료는 북부BIT산단에 각각 새롭게 터를 잡고, 한국맥넬티는 공장을 증설한다.

아산시에는 케이엔제이가 스마트밸리산단에, 서천시에는 마성산업이 테크노밸리산단에 공장을 각각 신·증설한다.

당진시에는 코디엠이 국가석탄산단에 신설하고, 서천군에는 삼인사이언스가 장항국가생태산단에 공장을 이전한다.

예산군에는 명배메탈, 이앤지스틸, 동아에프이가 신소재산단에 들어오고, 영광금속은 해당산단으로 이전한다.

도는 이들 기업이 생산을 본격 시작

“가로림만 해양정원 ‘한국판 뉴딜’ 반영을”

대통령주재 ‘한국판뉴딜 회의’서
수소도시 조성지구 선정 등 요청

충남도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지역 현안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도는 ▲충남 수소도시 조성 ▲지역 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등 4건에 대한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중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서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2개 사업에 대해 한국판 뉴딜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운송·활용하는 충남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등 지역에너지 산업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 그린경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해양정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수산자원 서식처를 보존하고 해양생태계 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새로운 해양 보전·활용 모델로 만들고 말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도의 역점 과제 중 하나다.

서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600억 원을 들여 서천군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일원 110만 4000㎡에 인공생태습지공원,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2025년까지 4조 7800억 원을 투자해 85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책기획관 041-635-3145



도·서산·태안·해양생태 4개 기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공동협력
충남도의 핵심 과제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이 손을 잡았다. 지난 9월 24일 도와 서산시, 태안군, 해양·생태 관련 4개 기관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해양·생태 관련 4개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롯데 아쿠아리움 등이다. /해양정책과 041-635-2765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온라인 개최

11월 말·공공기관 102곳 참여

충남도는 10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주간 '2020 지역인재 채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하고, 도를 비롯한 14개 시·도가 주관하는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공공기관 102개소가 참여한다.

설립,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라특강, 진로적성검사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공공기관 재직자들이 참여한 브이로그(VLOG)를 통해 취업 노하우와 소소한 일상도 공유한다.

채용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채용설명회 누리집(www.innocity-jobfair.com)에서 기관별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기소개서 컨

/균형발전담당관 041-635-2131

고용 안정·경제 회복 행정력 집중

제7차 경제산업대책본부회의
경제 활성화 분야별 시책 논의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도청에서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장관 김현미)를 비롯한 경제·산업분야 관련부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경제산업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도내 제조업체들의 소비·수출 감소세는 여전히 지속하

고 있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고, 고용·생계지원을 연 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산업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체계를 구축, 경제·산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며,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통해 충남형 상생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창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소비 진작, 사회안전망 강화와 중소기업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선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 연계 소비진작행사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확대 ▲소상공인 찾아가는 건강검진 진료소 운영 및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충남 중소·벤처기업 육성 신규펀드 등을 조성한다.

투자유치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및 혁신창업공간의 내포신도시 IT 생태계 허드(HUD) 구축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하반기 비대면 온라인 추진사업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

관광 및 농업분야 등 활성화를 위해선 온(ON)-축제 개최로 지역 예술인·소상공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충남 관광 캐시백 서비스 추진을 통해 침체한 충남관광을 활성화한다.

/경제정책과 041-635-3318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

도민 위한 일자리 발굴 중점

충남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 사업 부문 우수상(장관상)에 선정됐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충남테크노파크

와 함께 추진한 '미래형 자동차부품산업 고용창출 기업지원'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사업은 미래차 관련 신사업·기술 습득 중점 역량강화, 기술개발·거래선 다변화 등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을 이끄는 것이 강점이다.

이와 함께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고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시상하고 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2242





차세대 자동차부품 혁신클러스터 조성

천안·아산 강소특구 비전 선포 첨단기업 및 연구소기업 육성

2025년까지 부가가치 604억

충남도가 차세대 자동차부품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 미래 자동차를 선도하기 위한 비전을 대내외로 선포했다.

도는 지난 8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강소특구)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명의의 강소특구 육성 계획 및 비전을 발표했다.

자동차 부품 산업 전국 2~3위인 천안·아산을 향후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KTX 역세권

인 천안 불당동과 아산 탕정면 일원, 천안 풍세일반산단 일부 등 1.08㎢ 규모로 개발된다.

도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부품 등 3개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강소특구에는 매년 국비 60억 원과 지방비 12억 원 등 총 72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천안시, 아산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함께 신규 사업 발굴 및 펀드를 조성하게 되며, 강소특구 내 첨단기업 및 연구소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한 특구가 활성화하면 오는 2025년까지 ▲부가가치 604억 원 ▲고용 1155명 ▲생산 1578억 원 등의 경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승조 지사는 “2025년까지 강소특구 내 연구소 기업을 54개 이상 탄생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강소특구는 대한민국 미래 자동차 기술의 보고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자동차 원천기술 탄생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와 천안시, 아산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날 강소특구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기업 혁신 성장을 공동지원하기 위한 ‘천안아산 강소특구 행정협의회 협약’도 체결했다.

각 기관은 강소특구행정협의회 구성, 강소특구캠퍼스 육성·발전, 제반 인프라 및 재정 지원 등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강소특구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성장과 041-635-3956

충남사회서비스원 출범

충남복지재단 확대 전환

충남사회서비스원(원장 고일환)은 12일 충남복지재단의 충남사회서비스원로의 확대 전환에 따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남복지재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국·공립 복지시설(사업)의 수탁 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종사자

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으로 ▲ 기존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던 복지정책 연구를 통한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및 확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이다 /충남사회서비스원 041-330-2424

저출산 극복시책 전국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충남도가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5회 임신부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날 포상은 매년 10월 10일 임신부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모자 보건에 기여도가 높은 개인·기업·단체 등을 선정해 수여한다.

도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충남 행복키움수당 지급(만36개월까지 월 10만 원) ▲임산부 119구급서

비스 ▲충남아이킴플 운영(24시간 제 보육)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 ▲3대 무상교육(고교 무상교육·친환경 무상급식·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대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해 도내 임산부 및 분만 관련 기관에 마스크와 항균마스크패드를 지원하는 등 감염병에 취약한 임산부 보호에 힘쓰고 있는 점도 주요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4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제 컨퍼런스

충남도가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부남호 환경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을 통한 생태복원 사업에 나선다. 충남도는 지난 12일 예산 스폴라스 리솜에서 ‘2020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에 대한 지역 연대를 제안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역간척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양승조 지사와 김영선 도의회 의장,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국제기구, 환경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 토론, 좌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해양정책과 041-635-4772

충남도립대 내년 신입생 첫 학기 등록금 지원

공립대 최초 등록금 전액 장학금 학생·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충남도립대학교 신입생 전원이 2021학년도 첫 학기 등록금 전부를 면제 받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6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립대 최초로 신입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도민 부담을 완화하고, 앞으로 대학 공적 역할을 키워나가기 위한 전초로서 충

남도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1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첫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양 지사는 “코로나로 인한 가계 부담을 충남도가 함께 짊어지기 위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며 “이번 전액 장학금 지급이 학생과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교육은 개인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역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며 “빈부에 상관없이 대학 진학과 고등전문교육을 공정하게 받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노력은 반드시 사회 양극화를 줄이는 소중한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립대학교 041-635-6622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최우수에 탈석탄금고 확대

충남도는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도를 비롯한 전국 56개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동참한 도 기후환경정책과의 ‘충남이 첫 발 댄 탈석탄 금고, 150조 원으로 확대’가 꼽혔다.

탈석탄 금고는 금융기관의 재산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고 지정 시 평가 항목에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 부문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수상은 ▲보령시 ‘해수욕장(유원지) 코로나 발열 체크 전국 방역의 모범이 되다’ ▲도 사회적경제과 ‘전

국 최초, 사회적금융 융자손실액 지원 제도 신설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서산시 ‘시민 소통 참여 방식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확대 피해 아동쉼터 조성 기반 구축’이 차지했다.

장려상에는 ▲도 환경안전관리과 ▲청양군 ▲도 물관리정책과 ▲도 여성가족정책관 ▲서천군·역사문화연구원 ▲도 수산자원과 ▲감사위원회 감사과 ▲당진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도는 이번에 선정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도지사 상장과 인사 인센티브 부여 등 포상을 수여하고, 정부합동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대표 사례로 추천할 계획이다.

/정책기획관 041-635-3135

도민 지역문제해결 생활실험 지원

11월 13일까지 공개모집

충남도가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2020년 도민 지역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리빙랩은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시도 또는 실험으로, 주차난, 쓰레기 처리, 교통·환경 등 다양한 현상이 문제 해결의 실험실로 변할 수 있다.

도는 내달 13일까지 도민과 도에 소재지를 둔 단체, 기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한 뒤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부지역에 한정된 단순 민

원 등 사업의 공공성 또는 사회적 가치가 낮아 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도민은 2000만원 이내, 단체·기업·대학은 5000만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지역, 참여인원 및 파급효과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적정금액을 조정·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사업자 역량 ▲사업계획의 독창성, 파급효과, 협력방안 ▲사업예산의 규모, 집행계획 등으로 소통협력 공간 민간위탁자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충남넷)-행정-도정공고-공고/고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공동체정책과 041-635-3473

도, 재정운용 효율성 우수기관

효율성·계획성 분야 ‘가’ 등급 인센티브 특고세 6000만원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 결과 효율성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매년 전국

자치단체의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을 비교·분석·평가할 수 있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올해 2019회계연도 실적을 대상으로 재정 효율성·계획성·건전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로 분석해 종합 우수기관, 효율성 우수기관, 계획성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도는 효율성 분야에서 체납액 관리비율(지방세 0.54%, 세외수입 0.06%),

지방보조금 비율(1.13%) 등 징수 및 외부지원관리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계획성 분야에서도 세수오차비율(102.18%), 이불용액비율(1.60%) 등 재정계획 및 집행 관리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최근의 태풍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 지원하고 경상경비 절감, 전략적 예산투자 등을 통한 세출구조조정, 자체 세입기반 지속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증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담당관 041-635-3162



충남 농산물 지역에서 직접 공급

58개 하나로·롯데마트 등 참여 로컬마트 공급체계 구축·가동 농산물 유통 6→4단계로 줄여 농업인 물류비용 절감 등 기대

충남지역 농산물을 타지 유통 거점을 거치지 않고 인근 마트로 곧장 공급하는 길이 열렸다.

도는 충남오감 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 지역 생산 농산물을 도내 하나로마트와 롯데마트 등에 직접 납품하는 '충남농산물 로컬마트 공급체계'를 구축,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로컬마트 공급체계는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도내 마트 타지 농산물 판매 문제 완화 ▲소비자 구매 만족도 증진 등을 위해 마련했다.

현재 도내 농산물 상당수는 농가에

서 산지유통인, 서울 가락동시장을 비롯한 수도권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까지 6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고 있다.

가령 예산군민이 거주지 인근 마트에서 쪽파를 구입한다면, 농가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직접 유통시킨 것이 아닌 이상 수도권 도매시장을 거쳐 온 예산 쪽파나, 타지에서 생산한 쪽파를 만나게 된다.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구축한 로컬마트 공급체계는 '농가→농협→로컬마트→소비자'로 유통 단계가 4단계로 줄었다.

거점 농협으로 지정한 예산농협과 금산 만인산농협이 산지농협 20곳을 통해 도내 하나로마트 30곳과 충남·대전 롯데마트 8곳의 발주량을 맞추는 방식이다.

취급 농산물은 28개 품목 45개로 우선 잡았다.

유통에는 지난 2016년 도입한 충남오감 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한다.

거점농협은 판매 이윤 없이 5%의 수수료만 받은 뒤 각 마트에 공급함으로써 유통비용을 크게 줄인다.

도는 로컬마트 공급체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물류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급 체계 구축으로 산지는 유통 단계 축소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트는 재고 부담 없이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싱싱한 충남 농산물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 산지농협, 하나로마트 등과 협의회를 운영하며 마트와 산지를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 로컬마트 공급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유통과 041-635-417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해제시까지 착용 필수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시 발령하고, 계도기간을 다음달 1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

도내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다.

아울러 ▲유흥주점·노래연습장·유펜 등 고위험시설 12종 ▲일반음식점·공연장·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 실내 시설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보건정책과 041-635-4303

최초로 김양식을 시작한 섬

충청이 품은 섬 이야기 (25)태안 대야도

양식 김 수출로 한때 '부자섬' 어촌계원 자율관리어업 동참 관광객 늘고 어민 소득 향상

대야도는 태안군 남단 천수만 입구에 있는 섬이다. 그러나 1970년대 안면도와 연륙되어 더 이상 섬은 아니다. 안면도의 부속섬인 대야도는 옛날부터 넓은 갯벌과 해초가 많이 있는 큰 섬이라는 뜻으로 한자표기 '큰대(大)자(也) 이야기(也)자'를 써서 '대야도(大也島)'라 불린다.

대야도는 갯벌과 바위가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어종과 해산물 이 살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이곳에 일제는 1933년 서해안의 수산시험소를 설립하여 김양식을 실시하였다. 약 7년 동안의 시험을 거쳐 5년 만에 전국에 보급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김양식을 시작한 '부자 섬'으로, 1970년대 전국 일간지에 '낙도지만 달러박스'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소개된 적이 있다. 양식된 김을 일본 등지로 수출하며 외화를 벌어들인 것이다.

그야말로 이렇게 잘 나가던 대야도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천수만 간척사업으로 안면도와 섬이 맞붙은 대야도는 생태계의 변화로 큰 타격을 받았다. 1980년대 천수만이 두 동강이 나면서 인하여 양식하는 김에 갯벌이 생기는 등 작황도 좋지 않아서 더 이상 김양식을 할 수 없었다. 인공적으로 물길을 막아버렸기에 천

수만의 어획량도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대야도 주민들이 하나둘씩 도회지로 이주해 나갔다.

대야도가 최근 다시금 주목 받게 되었다. 30년 만에 다시 한번 '달러박스'의 부활을 꿈꾸기 시작한 것이다.

대야도 마을 앞에는 거대한 갯벌이 있어 놀이터이자 생태체험장이다. 썰물 때가 되면 서해안의 높은 간만의 차이 때문에 바지락을 채취하려는 체험객으로 마을과 갯벌이 북적인다. 이런 현상은 2010년 대야도 어촌계원들이 힘을 모아 '자율관리어업'에 동참하면 서부터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의 생산기반 구축과 지역 간의 어업 분쟁 해결, 어민들 소득 향상과 복지, 대야도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어장과 갯벌 자원 관리, 경영 개선, 질서유지 등을 펼치는 공동 사업이다.

대야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50가구 75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노력한 결과 큰 변화를 가져왔다. 방문객 숫자가 2010년 3만 2621명에서 2011년에는 6만 5166명으로 늘었고, 체험객 수는 5,000명에서 4만 1500명으로 몇 배나 증가했다. 바지락 판매액도 엄청나서 2010년 4억 4000만원에서 2011년 8억 8000만원으로 2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갯벌 체험어장 운영 수입은 5000만원에서 4억 원으로 무려 8배나 늘었다. 이렇듯 대야도가 작은 섬이지만 안면도와 일찍이 연결되어 문화의 접촉이 활발하였다. 그래서 주민들이 배타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귀촌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였다.

/이재연 목포과학대 섬해양연구원



제25회 충청남도민의 날 기념식 충남도는 지난 5일 도민의 날을 맞아 문예회관에서 '제25회 충청남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승조 지사와 김용찬·이우성 행정·문화체육부지사, 주요 기관·단체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 축하 영상 상영, 표창, 기록 동영상 상영,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 발전을 이끈 '자랑스러운 충남인' 6명, '모범도민' 5명 등 총 11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도민의 날은 지난 1996년 '개도 100주년 기념식'을 통해 제정·선포한 기념일로, 10월 초 백제의 웅진천도 시기를 고려해 지정했다. /운영지원과 041-635-3502

3000억 투입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육성' 파란불

과기부 예타 대상 최종 선정 글로벌 선도제품 개발 목표

충남도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중인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제품 기술 개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에 따르면 양승조 지사는 지난 9월 29일 아산시청 기자회견에서 비대면·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제품 기술 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휴먼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과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 또는 유전체를 말하는데, 질병 치료 새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도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산시는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제품 기술 개발 관련 인프라를 마련해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2022년부터 7년 동안 국비 1625억 원을 포함, 총 2949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를 아산시 배방읍 천안·아산 R&D 집적 지구에 짓고, 관련 시설 도입을 통해 구축한다.

상용화센터에는 생산시설, 무균·고위험 감염동물실, 스타트업 기업 지원실, 글로벌 기술 표준화 연구실 등이 들어선다.

상용화센터 주요 기능은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기반 구축, 사업화 네트워크 지원 등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본격 추진되면, 생산 유발 2806억 원, 부가가치 유발 1090억 원, 소득 유발 559억 원, 취업 유발 1021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지사는 "내년 4월 예타 본조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산업육성과 041-635-3932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개선 '맞손'

도·4개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악취 저감 통해 정주여건 개선

충남도가 축산 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 농가 환경 개선에 나선다.

도는 지난 9월 25일 도청에서 홍성·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와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 악취 개선을 위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한 정보, 기술 인력 및 장비 등을 교류하고, 각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협력하는 등 분야별 악취 저감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와 홍성·예산군은 주요 악취배출 사업장 현황 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를 추진하고, 악취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농가 맞춤형 악취 저감 컨설팅, 축사·주거지역 기상 및 악취 측정을 통한 악취 확산 모델링,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축산 악취 저감 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해 사업 지도를 실시하고, 농가 인식 개선 및 저감 사업 등을 지원한다.

한편 현재 내포신도시 반경 5km에는 307개 축산 농가가 돼지·소 등 약 64만 마리의 가축을 사육 중이다.

/물관리정책과 041-635-2732



태안 대야도 전경



새로운 '충남의 노래' 탄생했다

대상에 '거꾸로프로젝트'

220만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새로운 '충남의 노래'가 탄생했다.

충남도는 지난 5일 열린 '충남의 노래 전국 공모전 본선'에서 거꾸로프로젝트 팀의 '충남의 노래'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본선 진출팀은 ▲몽글한 가족 '충남 여행' ▲배성운 '오, 충남!' ▲92(구이) '안녕, 충남' ▲제이-비(Jay-B) 밴드 '위드(with) 충남' ▲거꾸로프로젝트 '충남의 노래' ▲타래 '충남의 노래' ▲정다와 '아름다운 충남' ▲신주형 '충남에서 꽃 피우리라' ▲아름볼휘 중창단 '함께 사는 충남이야' ▲블레드 합창단 '행복한 충남' 등 10팀이다.

도는 예술성, 창의성, 적절성, 대중성, 완성도 등을 종합 평가, 최종 심사 결과 거꾸로프로젝트의 '충남의 노래'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거꾸로프로젝트의 '충남의 노래'는

충남의 역사와 상징, 미래를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로 작곡한 노래다.

최우수상에는 배성운의 '오, 충남!'이, 우수상에는 몽글한 가족의 '충남 여행'과 제이-비 밴드의 '위드 충남'이 각각 이름을 올렸으며 나머지 본선 진출 4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 규모는 대상 1팀 3000만 원, 최우수상 1팀 1000만 원, 우수상 2팀 각 500만 원, 장려상 6팀 각 100만 원 등 총 5600만 원이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이번 공모전 대상 곡을 충남의 노래로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공모전에 대해 "새로운 '충남의 노래'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보자는 의미"라면서 "여러 사람의 힘과 뜻이 모여 새로운 노래가 탄생하듯 우리 도정도 도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3



충남의 노래 본선 경연대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상을 받은 거꾸로 프로젝트 팀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 맹철영

충남의 노래 대상 악보 /작곡 채지혜

충남 소방관 정신건강 증진 위해

4개 의료원에 마음공감센터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손정호)는 '도민 생명 지킴이'인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 상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7일 공주의료원 대강당에서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도의회 의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음공감센터' 개소행사를 개최했다. 마음공감센터는 스트레스와 격무, 과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관 등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천안·공주·서산·홍성 등 4개 의료원에 설치했다.

각 센터에는 전문상담사 1명을 전담 배치, 소방관 등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부터 업무 고충, 일상적

스트레스, 가정불화까지 상시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 대상은 소방공무원 3741명과 의용소방대원 1만 457명, 의무소방원 113명, 사회복무요원 40명 등 총 1만 4351명이다.

상담은 무료이며, 횟수 제한도 없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마음공감센터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는 소방관들의 정신건강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15

학교 밖 청소년 진로공모전 개최

29일 마감·영상·카드뉴스 등 지원

충남도청소년진흥원(원장 박영의)은 '제2회 학교 밖 청소년 진로공모전'을 오는 2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충청권역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청소년(9세~24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영상·카드뉴스·사진·아이디어 등 4개 부문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영상·카드뉴스·사진 부문은 '학교 밖 청소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이

야기'라는 주제로, 아이디어 부문은 '효과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진로직업체험 공간 꿈빠 홈페이지(<http://cnyouth.or.kr/cumpa>) 공지사항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cnycareer@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12개의 작품을 선정하고, 11월 27일 비대면 형식으로 온라인 시상식은 진행할 예정이다.

/재충남청소년진흥원 041-554-1380



어린 바지락 500만 패 첫 방류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소장 남학현)는 홍성 남당리 인근 갯벌에서 처음으로 인공 생산한 어린 바지락 500만 패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서해안 특화 패류품종인 바지락에 대한 종자 생산 기술 확보와 갯벌 자원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773

문화콘텐츠 아이디어 공모

21일까지 대학생팀 대상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맹창호) 콘텐츠코리아랩은 충남도내 대학생 팀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분야 아이디어 공모 대항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

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우수 3팀에게 상금을 시상하며, 참가팀 전원에게 콘텐츠 기획 전문 멘토단의 문화콘텐츠 기획 관련 강의 및 1:1 멘토링 또한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충남도내 문화콘텐츠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20팀의 대학생팀이며, 모집기간은 21일까지이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590-0904

진정한 영웅을 가려내는 해안

대한민국, 3대 위기를 말하다

⑧공동체를 위한 자율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자연의 순리 앞에 가을을 끌어다 놓았다. 밀려난 것인지 끌려간 것인지 모르지만 갈등 없이 제자리를 비켜준 여름에게 찬사를 보낸다. 장기간 된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동체를 위한 규칙들이 정해졌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만나더라도 마스크로 입을 단아야 한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다. 독립불체의 인간으로서의 마치 단체로 벌을 받고 있는 느낌이다. 걸리지 않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가슴보다 머리로 사람을 대했던 것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는다.

집에만 머물러야 하니 사람이 그림자. 아파트 놀이터에 나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

본다. 아이들은 미끄럼이나 그네를 탈 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린다. 넘어진 친구에게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어린 동생들에게 차례를 양보하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술래가 되어도 억울해 하지 않는 모습이 어른을 부끄럽게 한다. 가마타기 놀이가 한창이다. 서로 서로 팔을 걸어 가마를 만들고 그 위에 한 사람을 태워 왕을 등극시키는 놀이다. 왕의 자격은 오로지 몸이 작고 가벼워야 한다. 그래야 가마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왕의 탄생을 축하하며 오후 한 때가 즐겁다.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질서에 놀란다. 덩치 큰 형의 위력이 존재하지 않고 왕의 자격에 대해 이론이 없으며 놀이를 위해 땀 흘리는 아이들의 모습에 감격한다. 통치자 없는 자율이 아름다우며 옛 그리스 아테네의 아고라광장을 연상케 한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서 정은경 본부장이 그대로 청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우리는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사람으로 적임자라는 확신 때문이다. 독감증상과 비슷하다는 코로나19에 걸리면 가족으로부터 격리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과도 단절이 불가피하다. 긴 시간 홀로 악전고투하며 완치가 된다 해도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완치되어 사회로 돌아오지만 대부분 직장을 잃게 된다. 그 자리를 비워두고 오래 기다려 주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이 그렇고 코로나19 감염자라는 낙인이 그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히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직업을 잃게 되거나 사회에서 격리되는 공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학교에 가야 할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아야 하는 젊은 엄마들의 고충도 들여다 봐야 할 일이다. 육아와 가사노동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그것이다. 이쯤 되면 코로나19는 인류의 대재앙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중차대한 이유가 되었다.

재앙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세계보건기

구(WHO) 사무총장(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사퇴 촉구에 서명한 사람들의 청원게시 글을 보면 WHO사무총장의 거짓말과 정치적 중립 위반에 집중돼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원을 의식한 불공정한 처사는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 덩치 큰 형의 위력이 암묵적으로 개입되어 전세계적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한 결과이다.

정치는 사익을 취하기 위해 검은 거래에 능통한 일이 아니다. 국민은 그들을 배척하고 시대가 부르는 진정한 영웅을 가려내야 한다.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해안이며 몫이다. 부디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자율로 어른들의 가마타기 놀이를 기대해 본다.



민수영 시인, 칼럼니스트

‘촌스러운’ 사투리?... “충청말은 충청인의 자랑이जू”

“옥수수(사투리로도) 옥수수라고 하지 않아?”, “아녀~ 옛날엔 옥수끄라고도 했자녀?”

“OO엄마는 ‘남’ 보고 ‘남’이라고 허 ‘남!’”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꺾곡리 아름드리 나무 밑 정자에서 주민들이 ‘사투리 이야기 꽃’을 피웠다. 타지 출신으로 10여 년 전 꺾곡리로 귀촌한 신양순 이장의 ‘충청말 통역’이 없다면 뜻을 이해하기 힘든 대화도 오갔다.

신 이장은 “처음에 마을에 왔을 땐 주민들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며 충청말을 처음 접했던 당시의 당혹스러움을 떠올렸다.

신 이장이 주민들에게 “충청사투리 좀 말해봐요”라고 하자 주민들은 “뭐가 사투리구 뭐가 표준어인지 모르겠슈~”라며 ‘갈갈갈’ 웃었다. 태어나서부터 줄곧 사투리를 써왔을 마을 주민들에게 충청말은 곧 표준어였다.

충남도정신문은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해 우리가 아끼고 지켜나가야 할 지역어인 충청말 사투리에 대해 짚어봤다.

충남의 정체성이자 도민의 혼이 담겨있는 충청사투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지역별 차이는 어떠한지, 보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소중한 우리말, 지켜야할 충청말 예산군 대술면 꺾곡리 주민들이 한글날을 앞둔 지난 6일 충청사투리와 서울말이 적힌 표지물을 들고 충청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래(71) 꺾곡리 부녀회장과 마을주민 이희일(77), 김상현(60), 신미화(60), 권영자(77) 씨. /사진 주재현

백제역사에서 뿌리 내린 충청말... ‘충청말의 날’ 만들자

차령산맥 기점으로 특성 나뉜 충남말 서산·태안말이 충청말 순수성 가장 커 각 지역어의 소중성·혼을 되새길 차례

◆충청말도 지역마다 다르다

언어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같은 충청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행정구역상의 동질성도 지역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만, 실상 이보다는 생활의 거리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생활의 거리는 교통과 관련된다. 실제 거리가 멀어도 많이 오가는 곳은 소통이 잘 된다. 그러나 산이나 강으로 서로 오가기 힘든 지역은 말의 차이도 심해진다.

먼저 충남 지역은 충북 충주에서 시작된 차령산맥이 동서로 흐른다. 천안·아산·예산·세종을 가르는 광덕산을 지나 세종·공주를 가르는 무성산, 청양과 부여 사이 칠갑산으로 솟았다가 보령의 성주산에 멈춘다.

충남은 이 차령산맥을 분기점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생활권이 나뉜다. 차령산맥은 교통의 흐름을 막고, 서로의 접촉이 뜸함에 따라 말도 차이를 갖게 했다. 그래서 대략 차령산맥의 흐름에 따라 충남 지역 안에서도 말의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구분하면 천안·아산·예산·서산·당진·태안·홍성은 북부가 되고, 부여·논산·서천·대전·금산은 남부가 된다. 그 사이 세종과 청양·보령 등은 남북을 잇는 말의 특성을 보인다.

다음으로 말은 생활환경에 따라 분화된다. 차령산맥이 흐르는 지역은 산과 관련된 말이 발달하고, 논농사를 주로 하는 평야지역은 쌀과 관련된 말이 발달하고, 어촌지역은 바다와 관련된 말이 발달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이 같아도 산간지역과 평야지역의 말에 차이가 있고, 바다에 인접한 곳과 내륙 지역의 말이 다르다.

◆충청말의 원조는 어디?

충청말의 원조는 어디일까? 이 물음에 꽤 많은 사람이 태안, 서산말이라 답한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거기 말이 가장 ‘충청스럽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다.

일단 태안, 서산은 외진 지역이다. 전라도가 멀고 경상도가 가까워다. 경기도에 인접한 듯싶지만 아산만이 내륙 깊이 파고들어 서울에 가려면 예산, 아산을 거쳐 천안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에 태안, 서산 사람들은 경기도 사람도 전라도 사람도 만날 기회가 없었고, 경기도 말이나 전라도 말이 섞이기 어려웠다. 반면 천안은 경기남부와 인접해 경기도 평택이나 충북의 진천 증평말이 가깝고, 세종·대전은 충북 중남부 말과 차이가 적고, 논산·서천·금산은 전북말과 섞였다. 말의 원조는 말의 시작점을 뜻한다. 그것은 말의 역사와 관련된 말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역말은 생활권과 밀접하고, 인접한 곳과 잘 소통한다. 그 소통의 장은 대체로 국가사회를 단위로 한다. 먼 옛날 충남은 백제의 영역이었다. 백제는 경기와 전라, 충청을 아우르고 700년간 백제의 언어를 사용했다.

한국어 안에서 충청의 언어가 자리 잡게 된 원인은 대략 백제로 귀결된다. 이 백제의 언어가 후대로 이어지면서 전라와 충청, 경기로 분화된 것이다. 이러한 뿌리를 차치하고 다른 지역말이 될 섞였으니 태안·서산말을 충청말의 원조라 함은 이치에 어긋난다. 굳이 평가한다면 그것은 충청도 말의 순수성을 많이 간직한 언어가 될 것이고, 충청의 언어는 어디서든 모두 원조다.

◆사라지는 충청말, 충청말의 날

말은 삶이다. 삶의 뿌리다. 어떤 말이 사라지는 것은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삶이 지워지는 일이다.

그런데 충청말이 사라지고 있다. 충청의 아이들이 충청말을 쓰지 않는다. 충청의 어른들이 충청말을 가르치지 않는다.

충청말이 사라지고 있는 바탕에는 표준어가

“ 차령산맥을 따라 구분하면 천안·아산·예산·서산·당진·태안·홍성은 북부가 되고, 부여·논산·서천·대전·금산은 남부가 된다. 세종과 청양·보령 등은 남북을 잇는 말의 특성을 보인다. ”

있다.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고,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거기서 표준어를 배웠다. 표준어를 배우는 것은 좋은데, 내 말을 사투리라는 이름으로 지워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충청말을 쓰면 촌스럽고, 이에 더해 교양 없고 무식한 일이 됐다. 아무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표준어를 익혔다. 그러다보니 모두들 훌륭한 교양인이 되었지만, 그만큼 충청의 정체성은 상실하게 됐다.

우리 국어는 이제 수백의 언어 가운데 가장 단단한 세계 7대 언어 안에 자리했다.

지금은 지난날의 왜곡된 표준어교육의 문제점을 반성하며 지역어의 소중성을 되살리는 시대가 됐다. 이제는 충청의 언어를 되돌아볼 차례다. 국가의 공식어, 공용어로서 표준어 교육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소통의 필요에 따라 표준어를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충청말이 부끄러워 쓰지 못한다면 반성할 일이다. 우리 ‘충청말의 날’은 어디로 갔을까?



충청말 詩香

짐 - 어머니학교 6

기사양반,
이걸 어쩐다?
정거장에 짐 보따릴 놓고 탔네.

걱정 마유. 보기엔 노각 같아도
이 버스가 후진 전문이유.
담부턴 지발. 짐부터 실으셔유.

그러니께 나부터 타는 겨.
나만 한 짐짝이
어디 또 있간디?

그나저나,
의자를 몽땅
경로석으로 바꿔야겠슈.

영구차 끌듯이
고분고분하게 몰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분이니께.



약력
·1964년 충남 홍성 출생
·199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시집 ‘동심언어사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목록’ 등
·김수영문학상, 윤동주문학대상, 박재삼문학상 수상



| | | | | | | | | |
|-------|--|--|------|------|------|------|------|------|
| (1) | | | 반 | 이 | (2) | (3) | | (4) |
| | | | | | | | | |
| 안 | | | (5) | | (6) | | | |
| (7) 나 | | | | | (8) | | | |
| 다 | | | (9) | | (10) | | | |
| | | | | | | | | |
| (11) | | | 피 | 다 | (12) | (13) | | (14) |
| | | | | | | | | |
| | | | (16) | | | (17) | (18) | |
| (19) | | | | (20) | | | | |

충청말 낱말 퍼즐

※정답은 12면에 있습니다.

〈가로문제〉

- 친자식이 아닌, 밖에서 데려다 기른 아이를 이르는 말.
- 남편의 할아버지를 낮춰 이르는 말.
- 토끼가 자는 모습처럼,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잠.
- 겨작과에 속한 들나물로, 3월에 호미로 뜯어먹는 대표적인 봄나물.
- ‘비위에 거슬리어 아니꼽다’의 뜻을 지닌 형용사. ‘드럽구 치사허구 ***’라고 흔히 쓴다.
- 충남도에서 발행하는 본 신문의 이름.
- 지나는 절기나 하루의 때를 잘 모르는 사람을 놀려 이르는 말이다. 때를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할 때 ‘***편다’라고 한다.
- 집을 덮고 있는 부분. 보통 기와나 짚을 이용해 비가 새지 않도록 한다.
- 붉은 털을 지닌, 갯과에 속한 포유동물. 이것이 오래 살면 구미호가 된다.
- ‘굽빼기’의 충남말. 그릇 위로 불룩하게 담아낸, 보통의 갑절 분량. 비슷한 말에 ‘고봉’이 있다.
- 세차게 타오르는 불 속. 또는 심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르는 말.
- ‘얼마의 때가 지난 뒤에’. 또는 ‘훗날에’의 뜻을 지닌 말
- 입고 남은 옷이란 뜻에서, 함께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말.

〈세로문제〉

- 형편이나 상황이 어렵거나, 하는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모양을 이르는 말.
- 아버지의 어머니를 낮추어 이르는 말.
- 배추를 심고 가꾸는 밭.
- 어린이가 잠을 자려고 하거나, 잠이 깨었을 때 짜증을 내며 우는 짓.
- 일의 중간에 시간을 보낸다. ‘일 점 ***지 말어.’, ‘그 친구 땀이 시간을 많이 **어.’
- 사람이 많이 살고 번잡한 곳.
- 세숫물을 담은 둥글넓적한 그릇.
- 번개가 칠 때 번쩍이는 빛.
- 호미로 김을 매는 일.
- ‘고양이’의 옛말. ‘괭이’ 이전의 충남말.
- 죽은 사람의 혼령. 도깨비나 유령 따위를 이르는 말.
- 은근 많이 쓰는 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이런 뜻인데 대부분의 응답은 뭐라~ 이렇게 한다.

충청도 사투리의 멋과 맛

특별기고



김정태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느릿하고 얌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충청식 늘어뜨린 말투

점잖고 예의바른 양반 빼닮아

향토 가치 키워갈 우리 문화유산

오늘날 충청도는 북쪽의 경기도와 남쪽의 전라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강원도와 경상도,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해 바다에 접해 있다.

이 공간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고 지금도 충청도 사람들이 일하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이 그대로 있는 곳이다.

일찍이 이곳의 사람들이 산이나 강과 같은 지리적 장애로 인해 외부와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독자적인 충청도 사투리를 형성했다. 말하자면 충청도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한 것을 충청도 사투리에 담아 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충청도 사투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적어도 같은 지역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말 속의 높낮이나 강세 정도로도 대략 같은 지역 사람인지 아닌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는 특징적인 단어나 표현으로 알 수 있다. 표준어인 부사 ‘얼른’에 대해, ‘피딱’을 쓰면 경상도 사람이고, ‘언능’, ‘짜게’를 쓰면 전라도 사람이다. ‘훈저’ [훈저]를 쓰면 제주도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은 ‘어여 와~’, ‘어여 가~’처럼 ‘어여’라고 한다. 여기에서 다른 지역의 사투리와 구별되는 독특한 충청도 사투리를 듣게 된다. 이것이 충청도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다. 외모나 행실이 아니라 충청도 사투리에 의해서다.

충청도 사투리에는 두 가지 멋이 있다. “좀 지들러봐유~. 그라~. 댜지 뭐~. 안 그라~? 아이구, 워쩨대유~? 괜찮어유~.” 말끝을 한두 박자 더 길게 빼서 늘어뜨리는 말투다. 이 늘어뜨린 말투를 일반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의 행동까지 느리고 답답한 것으로 인식해 충청도 사투리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시각을 갖기도 한다.

그렇지만 말끝을 느리게, 늘여서 길게 빼는 말투는 느긋하고 사려가 깊은 마음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여유이다. 이 말투는 과격하지 않다. 오히려 차분함이 묻어난다. 점잖고 예의바르며 여유 있는 양반 이미지이다. 이 여유로운 말투는 충청도의 전통적인 지역 정서에 기반을 둔 것이다.

충청도 사투리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멋도 있다. “집이 딸래미 여우구. 훌륭한 사우 맞었다면서? 돈두 많구.” “아니 뭐, 그... 넘들두 다~ 그런디유 뭐~.” 말투가 대체로 직설적이지 않다.

상대를 치밀하고 신중하게 배려하는 우회적인 화법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않는다. 이처럼 충청도 사투리의 매력은 말하는 이의 여유와 듣는 이에 대한 신중한 배려에 있다.

충청도 사투리에는 맛도 있다. 후각적인 맛이라면 텅텅한 듯 하지만, 구수한 냄새가 풍겨오는 토속적 맛이다. “훈저년 심들어 못써~, 하냥 허~!” “괜찮어유~.” “이응감(영감), 움말 마실댕겨올테니께, 복실이 밥두 주구, 집 잘~ 봐유.” “이~ 그라~ 걱정 말구 잘 댕겨와~.” “파장이니께, 몽팡 갖구 가유~.”

충청도 사투리는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고 넉넉하고 공감하게 하는 은근한 맛이 있다. 적어도 충청도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충청도 사투리는 말끝을 길게 늘어뜨리니까 아리끼리허거나(아리송하거나) 멍기적거리(미적미적하는) 듯하여 속이 터지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얌전한 말투로 보문 느릿하게(여유 있게) 지들러(기다리는) 여유가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직설적이지 않고 신중한 배려가 들어있기도 하다. 여기에 구수롭(구수한) 맛도 난다. 때에 따라서는 승강두 부리지만 말이다.

따라서 충청도 사투리는 충청도만의 독특한 지역적 색깔을 반영함으로써 충청도 사람들의 정서적 일체감과 향토성을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충청도라는 공간의 문화적 가치를 키워갈 자원이지, 과거의 케케묵은 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삶과 문화적 힘이 압축돼 있고, 한 마디 한 마디, 말하는 표정마다에는 보물처럼 숨겨진 충청도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공주·부여, 내년 세계유산 축전 공동개최

8월 '찬란한 유산, AGAIN 백제로' 익산과 함께 백제유산 가치 전파

2021년 세계유산 축전 공모사업에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시·부여군·익산시) 선정에 따라 '찬란한 유산, AGAIN 백제로' 주제의 축전이 8월 개최된다.

이번 '세계유산 축전' 사업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모든 국민과 더불어 향유하고자 문화재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사업이다.

이번 축전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재)충남문화재단,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이 공동주관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개최된다.

또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세계유산을 소재로 한 전통공연, 재현행사 등의 가치향유 프로그램과 체험·교육·투어 등의 가치 확산 프로그램이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공주, 부여, 익산에서 공동으로 3원 생중계로 진행되며 미디어아트, 세계



공주·부여·익산 등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보유한 8개의 세계유산.

유산체험, 가상체험 등 팬데믹 시대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시 2개(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부여군 4개(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익산시 2개(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총 8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방문객에게 백제세계유산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역 연계와 주민주도에 중점을 두고 2021년 8월13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충남문화재단 041-630-2933

충청인의 詩香

집밥

등걸불이 활활 타들어가던 아궁이 불길기 사위면
 붉은 숯덩이를 굶어내 끓이던 어머니의 된장찌개
 노란 솔겔이 자느자느 불속에 녹아 들면
 양손으로 넉넉하게
 들기름 비벼 굽던 검은 김 몇 장과
 고등어자반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
 어머니를 부르며 드나들던
 문 주방 아래로
 멀건이 향수만 깊다
 고들고들 눌러 주시던
 누룽지의 냄새만이
 골 깊은 적막을 서성이고

한가롭던 누렁이의 걸음이 빨라지면
 재 넘어 오가던 겨울바람
 세차게 날아올라
 추녀로 기어들던 참새의 추억
 가고 싶은 기억저편
 팔개 타오르는 향수가 녹아든다.



임종본 시인

약력

·예산 출생, 월간 '문예사조' 시 등단
 ·시집 '사랑알기', '별은 꽃이 그림다' 등
 ·한국현대시문학상(2008) 외 다수
 ·내포문화예술원장, 한국문인협회 예산지부 회장 등 역임



'집콕' 하며 만나보는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1주년 온라인 특별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은 돈암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 '돈암서원, 세대를 잇다' 온라인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 속에서 세계유산인 돈암서원이 지역공동체에 남길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비대면시대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위해 VR 콘텐츠, 충청유교인물 스토리텔링, 인터랙티브

공간 등을 구현했다.

가상의 돈암서원에 입장하면 프롤로그 포함 ▲1부 '세계의 유산, 은둔의 이름을 알리다' ▲2부 '공간으로 되돌아보는 돈암서원' ▲3부 '사계, 신독재, 동춘당, 그리고 우암' ▲4부 '서원이 품은 보물' 등 총 5개의 전시영상을 만나게 된다.

온라인 관람객들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충남도청, 논산시청, 돈암서원 홈페이지에서 PC용 또는 스마트폰용 앱을 다운받은 후 전시 관람이 가능하



가상으로 구현된 돈암서원

다. 전시영상은 향후 연구원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되며, 10월 20일에는 개별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이 열려, e-전시도록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041-840-5074

유홍준 탁본전 '국토의 역사와 향기'

~12월 30일 부여문화원서 열려
 한국 역사 속 미학의 결정체

[부여]충남 부여군이 주최하고 부여문화원이 주관하는 유홍준 교수 기증 유물전이 지난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부여문화원에서 전시된다.

2016년 제1회 기증 유물전 이후 매년 주제를 선정해 열리는 기증유물전은 올해 '국토의 역사와 향기'를 주제로 유홍준 교수가 수집·소장한 탁본 7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은 ▲광개토대왕비 모탁본 ▲백제 사택지적비 등 삼국시대 비문 탁본과 ▲김유신장군묘 십이지신상 ▲성대대왕신종 비천상 ▲연곡사 동승탑 조각상 등 통일신라 조각상 탁본 등이다. 이밖에 ▲충무공 이순신 명랑대첩비 ▲영조대왕의 탕평비 ▲추사 김정희의 '시경', '불광' 등 우리나라의 역대 유명 금석문의 탁본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동국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큐레이터는 "유홍준 교수의 탁본 컬렉션은 시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실



광개토대왕비 모탁본

로 방대하며, 삼국에서 현대까지 사적비, 묘지석과 선사탑비는 물론 어필과 문인, 그리고 각종 문양에 이르기까지 종횡을 가로지르는 한국의 미학을 글씨로 증거해 내는 결정판'이라며 이번 탁본전을 높게 평가했다.

탁본전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전시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부여군 제공



명동상가 '트릭아트' 포토존 조성

지난 8일 명동상가 '호떡골목'에 문화관광형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벽화 작업이 완료됐다. 호떡골목에는 일반 벽화뿐만 아니라 형광페인트를 활용한 네온사인용 형상화한 벽화 등 참신한 시도가 돋보이는 그림들이 그려졌다. '트릭아트' 기법을 이용한 벽화를 활용해 포토존을 생성하기도 했다.

김경미/홍주신문

향토문학 발전의 도화선

충남의 근현대 문인들

(24)논산 정훈

향토정서 간결·극명하게 표현
 교육 통한 민족혼 회생 노력
 문단 풍요롭게 했던 대들보



거름이 돼 향토 문학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1911년 논산 양촌면 인천리에서 7대 독자로 태어난 그는 한학자였던 할아버지에게서 한학을 익혔다. 소학교 5학년 때 가족이 대전으로 이주하면서 고향을 떠나게 되고, 휘문고보를 거쳐 일본 메이지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대동야전쟁이 발발하자 학업을 접고 서울로 돌아왔다.

1935년 휘문고 선배인 정지용 시인

추천으로 잡지 '카톨릭 청년'을 통해 등단했다. 1938년 '자오산' 창간호에 '유월공(六月空)'을 게재하면서 문학 활동이 시작되는데 이 작품이 바로 출세작이 된 '머들령'이다.

해방 후 대전으로 내려가 계룡의숙을 설립한 이래, 호서학관, 호서중학교, 호서민중대학으로 발전시키면서 학장을 지내고, 문중충남지부장을 역임했다. 교육을 통해 민족의 혼을 되찾고자 했던 그는 문학 활성화를 꾀하고자 문예지 '향토'를 출간했고, '향토시가지'를 주재, 문학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켰다.

1946년 박용래 등과 함께 '동백'을 창간해 지방문학의 근간을 형성했

가 하면, 1949년 발간된 첫 시집 '머들령'은 대전충남지역에서 첫 번째로 나온 시집으로 기록된다. '머들령'이란 이름은 한 시절 문학청소년들의 동경의 대상이었고, 전설과 같이 후광으로 남아있다.

1952년 향토 문학발전의 도화선이 됐던 '호서문학' 창립과, '머들령문학회'를 조직했다. 이어 시조동인회 '청사', '차령'이 조직되는데 그때마다 그의 숨결이 닿아 문단을 풍요롭게 했다. 1970년 '충남문학' 창간호에 시 '눈물 한 방울도'를 발표하고, 1979년 '가람문학회'를 창립하는 등 문학에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이던 시인은 1992년 82세를 일기로 작고했다.

시조 작품 중 '동백'과 '춘일'이 유명세를 탔고, '밀고 끌고'와 함께 중등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한국인의 정서를 간결하고도 극명하게 그려낸 시인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지금껏 향토문단의 대들보로 기억되고 있다.

1994년 만인산 휴양림에 '머들령 시인' 정훈시비가 세워졌고, 2002년 '정훈문학상'이 제정돼 시인의 순정한 문학정신이 기려지고 있다.



이정우
 충남문인협회 회장

충청문단의 산파, 유수의 문학회를 출발시킨 시인 정훈. 향토의식을 서정에 담아내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의 시와 시조는 문단 형성에 밑



혁신도시는 함께 잘살자는 것

내포칼럼



박노찬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충남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혁신도시가 우리 충남도민의 혁신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이고, 우리 모두 축하 받아 마땅한 경사입니다.

되돌아보면 혁신도시 지정이 있기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느라 힘들었고, 때로는 지방정부끼리 치열한 눈치전을 전개해야 하는 곤혹스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충남도민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220만 도민의 열정과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번 승리가 더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은 행정과 도민이 충남을 위해 연대하고, 지방과 지방이 연대해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안으로는 충남도민들이 행정과 기관, 단체, 주민들이 연대하고 밖으로는 충남만 잘 살겠다며 충남만의 혁신도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이 연대하고, 충남과 충청권의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하면서 지역이기주의라는 반대논리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혁신도시 지정은 단순히 충남의 승리가 아니고 충남과 대전, 충청권 공동연대의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은 과밀화된 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혁신을 통해 골고루 잘살게 하겠다는 균형발전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함께 잘살자’라는 공동체 철학을 국가의 정책으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은 지방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지방은 지역안팎의 연대와 협업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대와 협업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혁신도시 지정이 완료되고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시즈2가 본격화 되면 지방정부들은 하나라도 더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 때문에 서로 생채기가 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각자 치열한 경쟁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서로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끼리 싸우기 보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정치인들의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앙정부 역시 지방끼리 갈등을 촉발시키는 현재의 경쟁방식 보다 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공공기관을 배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과정을 만들어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정부끼리 시기하고 갈등하기보다 서로 연대해서 더 많은 결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충남이 그런 연대의 정신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해 주는 만행 노릇을 해 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수고하신 충남도청 관계자 여러분들과 시민사회, 220만 도민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나눕니다.

220만 도민들의 열정과 끈기로 얻어낸 충남 혁신도시 지정 성과 공동체 철학, 국가 정책으로 실현 더 많은 연대와 협업 정신 필요 지역특성에 맞게 공공기관 배분돼야 지방정부 연대의 만행 노릇할 충남

백제에서 충남까지, 역사가 흐르는 강

충청의 산수·유교의 산수관 (23)충남의 젓줄, 금강

남한에서 세 번째로 긴 강 백제 수도 웅진과 관련 깊어 유학자들의 교통로·벉놀이터

경기의 한강, 전남의 영산강, 경상도의 낙동강 등 각지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강이 있다. 충청을 대표하는 금강(錦江)은 그 이름에서도 보이듯 비단처럼 아름다운 강이다. 금강은 한강·낙동강 다음으로 남한에서는 3번째로 긴 강이다. 금강은 전북 장수에서 발원하여 진안·무주·금산·영동·옥천·대전·연기·공주·부여·논산·강경 등 10여 개의 지역을 지나 군산만으로 흘러든다. 이 강으로 는 연기의 미호천(美湖川), 공주의 유구천(維鳩川), 그리고 논산의 논산천(論山川) 등이 유입되며, 정자천(程子川)·주자천(朱子川)과 같은 유학자와 관련된 이름의 지류도 흘러든다.

중국에서는 금강을 웅진강(熊津江)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백제의 수도 웅진과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이 금강이 부여로 흘러든 곳이

백마강이다. 백마강 남쪽에 있는 부소산에는 부소산성과 고관사, 낙화암 등의 백제와 관련된 많은 유적이 있다.

충청남북도를 관통하고 전라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금강은 예로부터 이 지역의 생활 및 농업용수를 공급했고, 교통로로도 이용되어 왔다. 현재 충청남북도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이 강 유역에 거주할 정도이니 그야말로 충남의 젓줄이라고 할만하다. 평야지대가 있는 중하류의 전라북도까지 합하면 금강 유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400만 명이 넘는다.

서울에서도 멀지 않은데다가 경관이 수려한 금강은 예로부터 많은 유학자들의 교통로이자 벉놀이터가 되었다.



백제에서부터 현재 충청남도까지 역사의 물결이 굽이치는 금강

었다. ‘비단(錦)’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 시의 소재로도 많이 활용되었다. 논산의 대유 윤증이 탁금정에서 남긴 시를 감상해 보면, 마음도 금강의 물결따라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금강에 와 배를 타고서
來乘錦江艇
금강에서 바람을 쏘였더니
却灑錦亭風
마음은 흰 구름과 함께 떠가고
意與白雲遠
시름은 유수 따라 사라지누나
愁隨流水空

(번역)한국고전번역원DB 『명재유고』 제2권, 양홍렬 역

/이지역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거리 두기

나태주의 풀꽃편지



한국시인협회 회장
풀꽃문학관장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거리 두기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한동안 기분이 언짢았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관계가 뼈격거리고 자꾸만 소원해지는데 거기에 더하여 거리 두기를 하라니 그건 지극히 비인간적인 주문으로 들렸던 것이다.

그런데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살아보니 그것 또한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인간관계가 고즈넉해졌다. 조금씩 칙칙하던 분위기나 느낌이 바뀌고 정갈해진 것도 사실이다. 아, 이런 세상도 있었나 싶게 차분해진 것이다. 처음 생각할 때보다 거리 두기는 그런대로 쓸모 있는 삶의 한 방편 같아 보였다.

이쯤에서 생각해본다. 거리 두기는 인간과 인간 사이, 사회적 거리 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우선은 나와 세상과의 거리 두기이다. 나

만 해도 그동안 세상과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살았던 것이 사실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하나하나 시시콜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나 싶다.

조금씩 세상일과 멀리하며 살 필요가 있다.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지그시 지켜보면서 살 필요가 있다. 세상 일든 자연이든 자정 작용이란 것이 있다. 시간의 법칙이란 것도 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고 제 갈 길을 가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는 사필귀정이라는 말로도 표현한다.

더 중요한 거리 두기는 자신의 삶과의 거리 두기이다. 인간은 나나없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없다. 하나의 본성이다. 하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거리 두기를 하면 좋겠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 입장에 서보는 것인데 이것은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다. 오랫동안 마음을 모아 연습을 해야만 조금씩 가능성이 열리는 문제이다.

어쩌면 이러한 거리 두기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 아닌지 모른다. 우선은 그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이어야 하고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성실하게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나는 나이 들면서 나의 문제까지도 조금씩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사는 지금의 마음이 좋다.

추억과 함께 사라진 동네 영화관

생생현장리포트



한수미
당진시대 취재부장

아직도 기억난다. 시내에 영화관이 새롭게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다. 우리 동네에 반듯한 영화관이 들어선다는 게 반가웠다. 2003년, 아빠와 함께 본 첫 영화는 ‘장화홍련’이었다. 공포영화라 무서울 법도 한데 영화관에 대한 설렘과 추억이 더 앞선 기억으로 남아 있다.

영화관 ‘키노키노’는 나쁜 아니라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한목에 받았다. 2003년 당진시대 기사 ‘키노키노’ 영화관 곧 개관’ 기사를 통해 영화관 착공 소식과 함께 개관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 지역의 작은 영화관에 담겨있었다. 영화 전에는 동네 상점을 홍보하는 광고가 나왔는데, 잘 만든 광고도 아닌데도 아는 곳과 아는 사람이 나온다는 반가움이 컸다. 주말을 맞으면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영화관 보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2014년 대형 영화관이 들어서면서 키노키노는 결국 문을 닫았다. 조이엔시네마가 인수하며 자리를 지켰고 자생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6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게 했으며, 무료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좌석 수를 줄이는 대신 테이블을 만들어 편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고, 대관 서비스로 영화관을 운영해왔다.

조이엔시네마도 추억의 뒤뜰로 사라졌다. 앞서 더 오랫동안 자리해 왔던 동네 영화관인 당진시네마는 진작에 문을 닫았다. 당진에 남은 영화관은 CGV 당진점이며, 롯데시네마도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17년 전 처음 본 영화가 ‘장화홍련’이었으면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내일’이었다. 프랑스 영화 내일에서는 마침 이런 내용이 나왔다. 다국적 기업이 지역 경제를 잠식하는 현시대에서 영국의 소도시 브리스틀에서는 지역화폐를 지역경제를 살릴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브리스틀 주민들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만들어 냈다. 이 돈은 브리스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다른 도시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지. 또 브리스틀에 사는 상인들의 가게에서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어. 체인점에서는 쓸 수가 없지. 체인점에서 물건을 사면 이 돈은 브리스틀에 남을 수 없거든.”

지역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작은 영화관이, 동네 슈퍼와 빵집, 시장 등. 그 자리에는 대기업 자본이 투입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빵집, 대형 마트가 들어섰다. 반듯한 브랜드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 우리는 대기업이 주는 편리함에 획일적이고 보편화된 사회에서 살아간다. 하나를 사면 더 없어주는 점을 찾기 어려워졌다. 다음엔 무엇이 사라질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릴까. 폐업하는 조이엔시네마를 보니 추억과 정이 하나둘 사라지는 게 못내 아쉽지만 하다.

백령도 점박이물범 가로림만에 나타났다

점박이물범, 노랑부리백로 발견
멸종위기 흰발농게 서식처
생태학적 보존 가치 충분
가로림만 정원조성 기대감 충족

[서산·태안] 서산과 태안의 가로림만에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과 흰발농게, 노랑부리백로가 나타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산시 가로림만은 2016년 국내 최초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서해안의 청정 갯벌이다. 국가보호종 10종과 포유류, 어류, 조류, 동물, 식물 등 42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점박이물범은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백령도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서산시 가로림만에서도 발견돼 놀라움을 주고 있다.

해안 개발로 개체수가 급격히 준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흰발농게 역시 가로림만에서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61호인 노랑부리백로와 보호 대상 해양생물 거머리말, 그리고 풀망둑, 도둑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도요새, 갯이갈매기 등 여러 종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가로림만은 식물부터 갑각

류, 포유류까지 먹이사슬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생태학적인 가치가 높다.

충남도는 서산시와 태안군과 함께 가로림만 생태 보존과 복원, 어민들의 삶의 터전 유지 등을 위해 가로림만을 해양정원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내 예타가 통과되면 본격적인 조성을 진행하게 된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들어서면 연간 4700억 원의 경제적 가치와 2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얻게 된다.

또한 해양 힐링공간 재탄생으로 매년 400만 명이 서산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정신문팀



가로림만에 출현한 점박이물범(왼쪽 위 사진)과 멸종위기 해양생물들

광천에 소리꾼 장사의 예술관 조성 '급물살'

주민들, 옛 광선초 활용 건립
광천 장터 '장사의 길' 조성
장사의 '문화예술인 공간되길'

[홍성] 홍성 광천읍 주민들이 소리꾼 장사의 선생을 테마로 하는 '광천 복합문화예술공간' 건립사업에 나섰다.

최근 광천읍 주민자치회는 장사의 선생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가운데 폐교(옛 광선초)를 활용한 광천 복합문화예술공간의 건립 방향에 대한 논

의를 나눴다. 주민들은 장사의 선생이 자신을 테마로 한 문화예술공간 건립 추진에 동의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장사의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에 위치한 옛 광선초는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후배 양성을 위한 '예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진입로를 확장하여 '장사의 길'을 조성하고 광천 옛 장터와 광천역까지를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

길'로 조성해 장사의 선생의 대표곡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

간담회에 참석한 장사의 선생은 "어린 시절을 보낸 광천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 더 정감이 간다"며 "장사의 길이란 이름을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가능한 많은 문화예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길 바란다"며 고향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홍성군 제공



순천향대 '천원의 아침밥' 운영

7가지 메뉴 선택 인기
학교서 2000원 부담

[아산] 순천향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받아 식사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해 선정된 '천원의 아침밥'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식비로 7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식을 제

공한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1식 4천 원 상당의 아침식사를 1천원의 저렴한 식비로 다양한 메뉴로 균형잡힌 음식을 제공, 부지런한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학생이 1천원을 내고, 학교에서 2천원을 부담하며, 1천원이 농림식품부로부터 지원된다.

대학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은 용돈이 적고 부지런한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신민철/온양신문

봉사만 13000시간... "봉사는 나누는 것"

강천 씨 당진시민대상 선정
적십자 회장 퇴임 반지도 기부

[당진]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 초대회장이었던 강천 씨가 제9회 당진 시민대상 사회봉사부문에 선정됐다.

강씨는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와 해나루시민학교에서 한글 교실 문해 강사로 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공식 봉사 활동 누계 시간은 1만 3000시간에 이른다.

강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발생 후 외국인근로자가 일자리가 없어 생계가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고 적십자 회장 퇴임 선물인 금반지 4돈과 쌀 등 부식을 전달하는 등의 선행을 펼치기도 했다.

강천 씨는 "주어진 삶을 그대로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 놀랍고 그저 부끄러울 뿐"이라며 겸손해했다.

강천 씨는 "1998년 당진에 대홍수가 나서 약 9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대홍수로 많은 이웃들이 피해를 입었고 복구하는 많은 사람들로 정신 없었다"며 "수해 현장에서 협의회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며, 회원들은 더욱 열심히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자는 의지를 다지게 됐다"고 전했다.

지나영/당진신문

장고도 편현숙 이장, 국민포장

섬 발전 유공 수상 영예
해삼, 전복 남획 방지 앞장 공로

[보령]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리 편현숙 이장이 섬 발전 유공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편현숙(사진) 이장은 지난 1995년

1월부터 25년간 장고도에서 부녀회장, 어촌계장, 이장 등을 역임해오면서 주민소득증대 및 관광자원 개발, 정주여건 개선 등 섬 발전에 기여한 공로다.

특히 도서 특성화 사업 공모에 참여해 '맛과 멋의 해삼문화 장고도' 사업 선정으로 국비 20억 원 등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역량강화 ▲해삼가공센터 ▲해당화 군락지 조성사업에 노력해왔다.

또한 장고도내 양식장 운영관리에 자율관리어업 방식을 도입해 마을의 주 소득원인 해삼, 전복, 바지락의 채포제장 제한과 채취 금지 시기 확대로 수산자원 남획 방지에 앞장서 왔다.

/보령시 제공

백제 성흥산성과 대조사 전설

새로배우는 충남學
웅진 사비성 지키려 세운 성
산성 중턱에 대조사 창건
절 지을 때 황금새는 전설로



대조사 미륵석불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에는 해발 260미터인 성흥산 정상에 아름다운 산성이 있다. 백제 수도였던 웅진성과 사비성을 지키기 위해서 금강 하류 부근에 쌓은 성이다.

성흥산성이 세워지던 시기에는 이곳 지명이 가림군이였다. 이런 이유로 가림산성이라고도 부른다. 백제 동성왕 23년(501년)에 축성되었으며, 백제시대 산성중에서는 축성 시기가 가장 확실하게 밝혀진 성이라고 한다. 산성 입구 양쪽에는 큰 바위가 버티고 서있어서 위압감을 준다. 바위 사이로 만들어놓은 돌계단은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마저 든다.

성흥산성 동남쪽 바로 아래에는 미륵석불로 유명한 대조사가 있다. 대조사 창건 유래가 되는 신비스런 황금새 전설이 재미있게 전해온다.

백제시대에 성흥산 중턱 큰 바위아래 한 노승이 암자를 짓고 살았다. 어느 봄날에 노승은 양지 들었다. 꿈을 꾸는데 황금빛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날아와 큰 바위를 향해 날개짓을 하고 있었다. 햇빛에 반사된 한줄기

빛이 바위에 집중되더니, 그곳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는 것이다. 노승은 이후에도 참선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계속 겪었다. 너무 신비한 꿈이어서 가림성주에게 보고 했다. 가림성주는 곧바로 백제 임금인 성왕에게 보고했다. 성왕은 때마침 백제수도를 공주에서 부여로 옮길 계획을 세우던 무렵이었다. 성왕은 즉시 이곳에 큰 절을 짓도록 명했다. 공사 규모로 보면 10년이 걸릴 큰 공사였다.

절을 짓는데 신기하게도 밤마다 새가 날아와서 주위를 밝혀주는 것이었다. 새의 도움으로 기술자들은 피곤함을 잊고 일을 할 수 있었다. 덕분에 10년이 걸릴 큰 공사는 5년 만에 완공될 수 있었다.

절이 완공된 후에, 큰 새가 나타났다고 하여 대조사(大鳥寺)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이어 관세음보살이 나타난 큰 바위에 미륵석불을 새겼다고 한다.

/김정섭(충남 홍성군)



가로정답 (1)개구녕반이 (2)시할야매 (5)토크이잠 (7)나싱개 (8)티겍다 (9)충남도정 (11)시절피다 (12)지병 (14)여호 (16)고배기 (17)불구영이 (19)야중이 (20)여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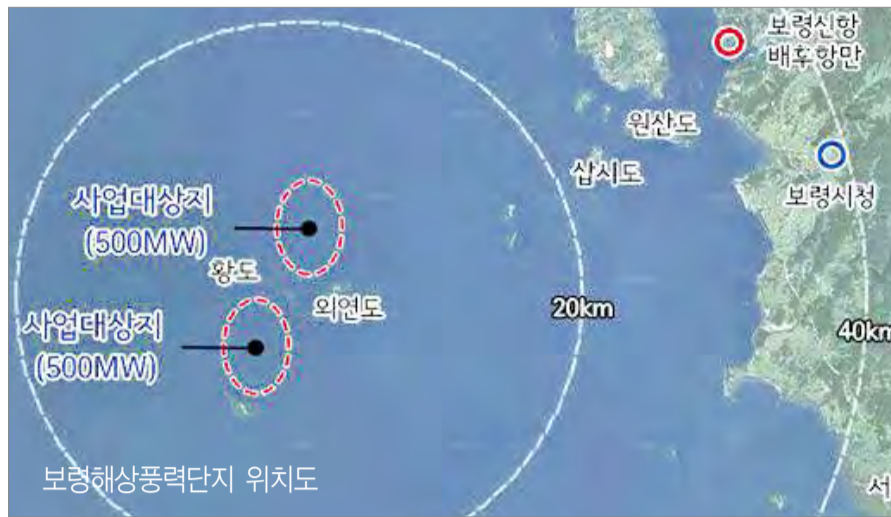
세로정답 (1)개갈안나다 (3)할매 (4)배차발 (6)잠티정 (9)중이다 (10)도회지 (11)시숫대야 (13)병갯불 (15)호맹이질 (16)고이 (18)구신 (20)기어

| | | | | | | | | |
|-------|---|-------|-------|-------|-------|-------|-------|------|
| (1)개 | 구 | 녕 | 반 | 이 | (2)시 | (3)할 | 아 | (4)배 |
| 갈 | | | | | | 매 | | 차 |
| 안 | | (5)토크 | 이 | (6)잠 | | | | 발 |
| (7)나 | 싱 | 개 | | (8)티 | 겍 | 다 | | |
| 다 | | (9)충남 | 도 | (10)정 | | | | |
| | | 이 | 회 | | | | | |
| (11)시 | 절 | 피 | 다 | (12)지 | (13)병 | (14)여 | (15)호 | |
| 숫 | | | | | 갯 | | | 맹 |
| 대 | | (16)고 | 배 | 기 | (17)불 | (18)구 | 맹 | 이 |
| (19)야 | 중 | 이 | (20)여 | 벌 | | 신 | | 질 |



보령 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국내 첫 공공주도 해상풍력
석탄화력 폐쇄 대체 효과
인구 유입·저탄소 에너지 기대
6조원 투입 1기가 발전 설비



[보령]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 우려와 대안 사업 확보를 위해 절치부심해온 보령시가 정부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보령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최대 45억 원을 확보했다.

보령시가 공모에 참여한 해상풍력 단지는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주)이 공동으로 참여해 외연도 북측, 황도 남측 해상 총 62.8㎢면적에 오는 2025년까지 1GW급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갖추는 사업으로, 약 6조원이 소요된다.

특히, 보령은 보령(신)항과 대천항 등 해상풍력 건설·운영을 위한 최적의

배후항만을 확보하고 있고, 해상풍력 단지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해상 변전소를 거쳐 보령화력 송전시설로 전력 공급을 연계할 수 있어 화력발전에서 해상풍력단지로의 전환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석탄발전 축소로 침체가 예상되는 보령지역의 에너지 산업 대전환으로 해상풍력 건설 및 운영관련 일자리 8200여개 창출과 4100여 명의 인구유입이 기대된다.

또한 제조업 및 조선업 등 해상풍력 연관산업을 웅천일반산업단지 내에 유치해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전초기지로 육성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GW 풍력 발전에 따라 연간 118만톤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문제해결은 물론,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과제인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시 제공

온양온천시장앱 '장바요'

수수료 0% 상인 부담 경감
앱 다운로드 받아 이용 가능

[아산] 아산시 전통시장인 온양온천시장이 온라인쇼핑 체계 구축을 위해 배달앱 '장바요'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8월 배달앱 서비스 '장바요'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쇼핑바스켓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온양온천시장은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500개 점포 중 50개 점포가 앱을 통한 온라인 쇼핑에 참여한다.

배달앱 '장바요'는 판매 중개수수료 0%를 도입해 상인들의 부담을 줄

였다. 아울러 상품주문 2시간 이내 배달이 가능하게 하여 아산시민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전통시장 상품을 시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하다.

오은호 온양온천시장 상인회장은 "배달앱 도입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로 이어져 아산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배달앱 '장바요'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접속해 '장바요'를 다운로드한 후 '시장명'에서 온양온천시장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아산시 제공



태안의 포포나무 농원에서 수확이 한창이다.

항암효과 포포나무 열매 수확

당도 높고 칼로리 낮아 인기

[태안] 천연 항암 식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포포나무' 열매가 태안에서 수확이 한창이다.

북미지역이 원산지인 '포포나무'는 그 열매의 길이가 8~10센티미터로 모양은 바나나를 닮았으며, 부드러운 식감에 바나나와 망고가 합쳐진 맛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당도가 높은 반면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단백질 함량이 높아 잼·와인·젤리·아이스크림 등의 가공식품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포포나무'에는 암세포를 잡는 천연 항암물질인 '아세토페닌'이 함유돼 있으며, 위장장애·염증치료·변비완화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 지역에서는 이달 초부터 태안읍 도내리의 '태안포포농원(대표 박상욱)'이 '포포나무' 열매를 본격 수확하기 시작했으며,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포포나무는 병해충에 강한 작물로 무농약 재배가 가능한 고소득 작물"이라고 소개했다.

/태안군 제공



금산인삼 시배지에서 칠선녀 춤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제39회 금산인삼축제 개삼제에서 칠선녀가 공연을 하고 있다. 행사가 열린 개삼터는 금산인삼 처음 재배한 곳으로 알려졌다.

/금산군 제공

서산 '뜸부기 쌀' 호주 밥상 오른다

올해 30톤 수출 현지 마켓 판매
뉴질랜드도 수출 판로 확대

[서산] 서산 '뜸부기쌀'이 9톤이 부산항을 통해 최근 호주에 수출된데 이어 이달 안에 2차로 21톤이 뉴질랜드로 출항한다. 뜰부기 쌀은 지난해 뉴질랜드로 수출한 15톤을 포함해 올해까지 총 45톤을 수출하게 된다.

뜸부기쌀은 3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우수 브랜드상을 수상했으며, 최고 미질을 자랑하는 삼광벼를 사용하고, 쌀 명품화 프로그램에 의해 최신회에서

도정하는 명품 쌀이다. 또한 도정시설의 GAP(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인증기준에 대한 이행 지도는 물론, 도정단계와 유통현장에서 시료를 수시로 채취해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소비자 구매 트렌드를 반영해 포장디자인을 더욱 고급화할 예정이다. 국내 메이저급의 채널 TV홈쇼핑에 판매하는 등 고품질&명품화 이미지를 높여 가고 있다.

시는 10~11월 중 뜰부기쌀, 생강한과, 조미김, 찹쌀유과, 양념뱅어포 등 5개 품목을 호주, 뉴질랜드 현지 한인 마켓 7개소에서 동시 해외 판촉전도



뜸부기쌀 호주 수출을 기념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개최할 예정이다.

임종근 서산시 농식품유통과장은 "과잉생산과 내수부진 등으로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서산 농·특산물 판로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제공

청양산 햇밤 28톤 중국 수출길 올랐다

[청양] 청양산 햇밤 28톤이 중국 수출길에 올랐다.

중국, 미국, 홍콩 등지로 꾸준히 수출되는 청양 밤은 알맞은 토양과 큰 일교차 속에서 생산돼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을 딛고 수출길에 올라 의미가 크다.

청양지역 재배농가들은 올해 말까

지 약 200톤(시가 6억원)을 수출할 계획이다. 앞서 5월 청양군은 홍콩 수출업체와 업무협약(MOU)후 홍콩 첫 선적에 나서기도 했다.

수출물량 포장 방식도 소비시장 요구에 따라 기존 벌크 형태에서 소포장 위주로 바꿨다. 소포장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 시장 확보에도 보탬을 준다.

/청양군 제공

서천 동부저수지에 황새 출현

[서천]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최근 동부저수지에서 황새를 관측했다고 전했다. 서천지속협 홍성민 국장은 매년 생태계 교란종인 가시박 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부저수지의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했다가 황새 3개체를 발견한 것. 황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서천군 제공



공주정보고 소방안전과 신설

[공주] 공주정보고등학교는 2021학년도 소방안전과 신설에 따른 학과개편을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공주정보고는 화재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최근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안전과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안전과는 대전, 세종, 충청, 전라권의 유일한 소방계열 특성화고 학과이다.

소방안전과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의 필수과목인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영어, 한국사를 교육과정에 고르게 편성해 학생들의 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한 체계적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또 중앙소방학교, 공주시 근교의 소방청, 충청소방학교, 소방시설협회와 협력해 실무능력을 갖춘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동숙/금강뉴스

새마을운동 1호 동네... 마을 역사책쓰며 농부의 땀 기록

더 행복한 마을

-천안 삼곡리(시구리)마을

포도·샤인머스켓 대표 생산지
'공동작목반'으로 주민 단결
마을 발전의 근간 '마을역사책'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나들목 IC를 나와 소로를 따라 걷다보면 포도향 가득한 마을에 다다른다.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 길 양옆에는 포도나무들이 뺨뺨이 들어섰고, 마을 중심부에서 뻗어나가는 형태로 자리 잡은 집 담벼락에도 포도 그림이 그득하다. 40~50년간 거봉이 유명했던 동네로, 10여 년 전부터는 작목을 바꿔 대표적인 샤인머스켓 생산지가 됐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1호 동네로도 알려진 천안 서북구 성거읍 끝자락에 위치한 삼곡리 마을이다.

2016년도 마을만들기 사업 당시, 마을 주민들은 아산 외암민속마을과 청양 알프스마을 등 선진화 지역을



천안 삼곡리마을 주민들은 고구마와 해바라기 공동 식재 작업을 통해 마을 경관 개선과 소득원 창출을 하고 있다.



기록해두기 위해 3년째 마을 역사책도 제작하고 있다. 권 이장은 "새마을 사업 당시 마을의 모든 걸 뜯어고치면서 농기구와 옛날에 사용하던 도구 등 역사가 사라졌다"며 "매년 진행되는 활동자료를 모아 책자에 기록하며 마을 발전의 근간을 튼튼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시구리마을은 포도와 샤인머스켓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소득사업과 경관 개선, 나아가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마을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심어주기 위해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 농촌 환경에 변화에 대한 대책과 대안 수립도 빼놓지 않았다. 주민들의 고령화로 마을 공동작업장 운영이 어려워지면 마을 특산품인 포도, 고구마 등을 가공·판매하는 매장으로 탈바꿈한다는 대안도 세웠다.

권영구 이장은 "앞으로 마을 특산품 매장과 전망대 카페 등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찾는 마을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주재현 scottju@korea.kr

견학했다. 숙박, 특산물 판매 등 관광 사업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마을 자원의 개발 필요성을 체감했다.

권영구 삼곡리 이장은 "처음엔 뚜렷한 아이템이 없어 어떤 마을을 만들어야할지 고민이 많았다"며 "단합력이 좋은 주민들이 힘합해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길가에 식재하며 마을 꾸미기에 앞장섰다"고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마을 진입로에 조성

된 해바라기와 국화꽃길은 경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뜸했던 외부인들의 발길을 끌었다.

삼곡리는 마을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주민 단합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 고구마를 키우며 마을 공동 소득원을 창출했으며, 고구마를 심을 때와 캐 때, 두 번은 꼭 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 함

께 작업하며 한목소리로 화합을 외쳤다.

이와 함께 삼곡리 향우회를 운영, '사람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인식을 주민, 출향인들에게 심어줬다. 매년 1월과 11월 마을에 50~60명씩 모여 어르신들에게는 음식을 대접하고, 율놀이, 체육대회, 노래자랑·공연을 즐겼다.

삼곡리 주민들은 마을의 역사를

토정 이지함 상에 김종성 씨

장수 사진 촬영하고 온갖 봉사

[보령]청라면에 거주하는 김종성(사진) 씨가 지난 7일 보령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대 토정 이지함 상 수상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김 씨는 2016년부터 어르신 67명에게 장수사진을 찍어드리고 ▲매월 2회 저소득 18가정에 대한 밑반찬 지원 ▲저소득 어르신 목욕탕 나들이 ▲한



부모 가정 도서지원 ▲독거어르신 생신 상 차려드리기 ▲김장김치 나눔 행사 ▲2019~2020년 1000만원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복지 위기 가구의 지속적인 발굴 및 신속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과 함께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청라면사무소 및 봉사단체와 더불어 저소득 독거노인 말벗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가정의 달에는 청라면 체육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어르신 효 잔치를 개최했다.

김 씨는 청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청라면 체육회장을 맡으면서 주민화합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후원으로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보령시 제공

84세에 등단한 늦깎이 시인

시사문단 신인상, 이계정 씨

"등단 소식에 감격해 울었다"



를 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베개 밑에 볼펜과 메모지를 놓고 잔다. 자다가 좋은 시상이 떠오르면 일어나서 적어놓고, 메모한 것을 다듬어 시를 쓴다. 시상은 아무때나 갑자기 떠오르기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다는 그는 40년 동안 300~400편 정도의 시를 써 왔다.

"여든이 넘은 이 '할아버지'가 시인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방에 들어가 영영 소리 내며 울었어요."

우강면 원치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계정(사진) 씨가 최근 시사문단을 통해 '몽계구름 단상', '호박꽃', '아미산 진달래꽃' 등의 시로 신인상에 당선되며 84세의 나이에 시인이 됐다.

초등학교 때부터 작문 과목을 좋아했던 그는 정몽주의 '단심가', 이방원의 '하어가' 등 옛 시조를 즐겨 읽었다.

이직이 지은 '까마귀 겁다 하고 백로야 웃지마라'는 시조처럼 옛 시조에는 비유법을 많이 사용해 흥미를 느끼게 됐다고. 이 씨는 "시를 쓰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를 좋아해 다양한 시를 많이 읽었고 자연스럽게 시

이번에 당선된 시 '아미산 진달래꽃'은 고향인 면천면 죽동리를 생각하며 써내려간 시다. 이 씨는 "내 고향 면천에 이 시가 담긴 시비를 세우고 싶다"며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뒤 그동안 써놓은 시들을 모아 놓은 시집을 출간할 계획이다. 이 씨는 "85세 되는 해에 생일 잔치 겸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라며 "서투른 글이지만 남은 인생 동안 열심히 시를 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예나/당진시대



코로나 속 피어난 학우애

[공주]영명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2, 3학년 선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스크 걸이' 기부 행사를 가졌다.

1학년 학년장인 이정은 학생과 학우들이 함께 마스크 걸이 300개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2, 3학년 학생 대표에게 전달해주며 "선배님들 학업에만 전념하세요"라고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후배들로부터 기부 물품을 전달 받은 권락균(3학년)군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후배님들의 정성스런 뜻을 받들어서 각자의 꿈을 키워가서 함께 우리나라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로 성장하자"고 말했다. 임동숙/금강뉴스



사서들의 서재



<크리스 코트먼 외/유노북스>

불안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자극이다

불안 장애는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질병이다. 걱정·두려움·초조부터 공황·강박·트라우마까지 다양하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

저자는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불안이 생겨나는 요인, 2부는 불안을 잘 극복하는 법, 3부는 불안을 극복한 사례를 소개한다. 사람들은 불안에 직면하면 피하려

고 하며 그 순간 안도감을 느낀다. 이런 경우 다음에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불안을 회피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적절하게 반응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불안은 우리가 더 이상 안전지대에 서 있지 않음을 일깨워 주며, 뇌가 우리에게 '더 성장해야 한다고', '더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불안은 우리에게 성취할 일, 쟁취할 목표,

실현할 꿈이 더 남았다고 말하는 몸의 언어라는 것이다.

불안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21가지 기술도 소개한다.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라, 소통하되 선을 그어라, 뭐든 좋으니 운동하라 등 모두 마음먹기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안감을 느낀다면, 스스로 각성할 시간이라 느끼며 불안을 극복할 방법을 생각할 때다. 책 한권 읽는다고 모든 걱정과 불안이 달아나진 않는다. 독자는 적어도 불안한 것은 정상이며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겪는 일종의 통과예러라는 말에 위로받을 것이다.

얼마 전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여주인공 대사가 생각한다. "날 위해 장작 거치대를 샀어. 나 이거 살 때 엄청 행복했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자신에게 선물해 준다는 말이 더 마음에 와 닿는 장면이었다.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당신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는 계절이 됐으면 한다.



최현주
충남도서관 사서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의원 김득응 의원 정광섭 의원



김명숙 의원 윤철상 의원 장승재 의원



이계양 위원장 지정근 의원 김복만 의원



김대영 의원 전익현 의원 최훈 의원

“농어업의 공익 가치·소득 보전에 최선”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 인터뷰

-후반기 의정 활동 계획은

“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공정과 진실이 더욱 기본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또한 언론계에 몸담았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분별력 있는 판단을 통해 도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민과 동행하겠다.”

-위원회에선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위원회는 도내 13만 3000여 농어촌가구와 29만 2000여 농어민의 대변자 역할을 맡고 있다. 농어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등 대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주된 임무다. 농어업 종사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좋은 품질의 식품을 생산할 수 있고, 온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 지급 규모를 전국 최고 수준인 농가당 연 80만 원으로 상향해 이끌어 낸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우리 위원회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소속된 의원들을 소개해 달라

“17년간 농협에서 근무한 농업유통 전문가 김기서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전반기 위원장을 지낸 김득응 의원도 소속 이동 없이 하반기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다년간 기초 의회에서 근무하며 풍부한 의정경험을 갖춘 의원도 우리 위원회에 대거 포진해 있다. 재선의 정광섭 의원은 태안군의회에서 의장을 역임했고, 11대 의회 전반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으로 활동한 장승재 의원도 서산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뛰어난 역량을 갖췄다. 김명숙 의원 역

“

농어업이 직면한 문제 진단하고

피부에 닿는 정책 마련

전국 최초 농어민수당 제도 보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이끌 것

”

시 청양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한 윤철상 의원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회에서 중점 추진할 과제나 현안은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 우선 올해 최초로 지급된 농어민수당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규모는 물론 지급 대상과 방식을 개선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도 이뤄내겠다.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이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연구활동에 매진하겠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발굴하고 농산물 생산·소비를 강화하기 위한 푸드플랜 수립,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 날로 증가하는 악취 민원 해결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도내 축사에서 배출하는 연간 800만여 톤의 가축 분뇨로 인해 많은 도민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과 액비순환 체계 구축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악취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

“코로나 극복·소방력 강화 병행 추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 인터뷰

-후반기 의정 활동 계획은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문제는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고 피부로 와 닿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지혜를 모을 계획이다.”

-위원회에선 무슨 일을 하는가

“11대 의회 하반기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전하면서 재난 대응을 위한 최적의 조직으로 거듭났다. 재난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 소방본부와 도내 16개 소방관서를 소관부서로 둔다. 각종 재난의 효율적 예방·수습, 도로와 항만, 교량 등 시설 관리·건설, 원활한 화재·구조·구급 같은 도민 안전과 행복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소속된 의원들을 소개해 달라

“위원장인 나를 포함해 모두 여섯 명이 소속돼 있다. 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지정근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하반기 1부위원장을 맡게 된 전익현 의원은 물론, 김대영 의원도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더욱 이바지하고자 자리 이동 없이 잔류했다. 모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이끌어 낸 역량 있는 의원들이다. 대표적으로 지 의원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수립했고, 전 의원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도내 농어촌지역 등의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호스릴소화전 설치 기반을 마련했으며, 김 의원은 영업용 차량에 영유아 카시트 보급 시범사업을 관철시킨 바 있다. 김복만 의원은 우리 위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재선 의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두 번이

“

예방과 방역, 현장지원 방안

도민과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갈것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헬기 추가도입 등 추진 노력

”

나 역임했고 금산군의회 의장을 지내는 등 풍부한 의정경험을 보유했다. 여기에 패기와 강한 추진력을 갖춘 최훈 의원도 하반기부터 합류하면서 안전 충남 건설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에서 중점 추진할 과제나 현안은

“도민안전, 도민행복, 찾아가는 의회 등 세 가지를 중점 추진목표로 정했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다.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어 예방과 방역, 현장지원 방안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이 육체·정신적으로 지쳐가기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헤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 소방력 강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및 근무여건 개선을 비롯해 노후 소방장비 신속 보강, 소방헬기 추가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충남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한 혁신도시 지정은 물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이와 동시에 도내 도로 관리 및 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 맞춤형 주거공간 공급을 위한 충남형 행복주택 사업, 무료 대중교통이용 사업, 도로·철도 분야 환경해권 광역교통망 구축, 재난 예방·복구사업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

의원시론

스포츠 클라이밍 인프라 확대해 ‘제2 김자인’ 키워야



안장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스포츠 클라이밍은 산악인들이 자연 암벽을 타고 정상을 등정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 수단에서 시작됐다. 최근에는 2013년 전국체전에 이어 2016 아시안게임, 2020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저변이 확대됐다.

이처럼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보다 스포츠 클라이밍이 가진 큰 운동 효과 때문일 것이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벽에 매달리고 옮겨 다니면서 완력과 지구력은 물

론 유연성과 균형감각, 순발력 등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으며,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스포츠다.

특히 노화로 인해 근력이 감소한 어르신이나 성장기 청소년 등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해외에서는 학교의 보편적인 체육시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의 체력 증진은 물론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체육관 신축 등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 시 스포츠 클라이밍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에서는 2019년 기준 도내 15개 학교가 스포츠 클라

이밍 시설을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아산과 천안, 당진, 보령, 서산 등에 위치한 시설은 어른들은 물론 학생들의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공주와 서산은 국제규격을 갖춘 야외 스포츠 클라이밍장 구축을 준비 중이다.

특히 충남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247회의 입상을 하는 등 전국 규모 대회 초·중등 부문 청소년 입상 함께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두터운 유소년 선수층을 기반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세계적인 선수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학교 체육과 선수 관리, 코치 시스템의 부재로 스포츠 클라이밍 학생 선수

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서울 등 대도시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와 같은 해 아시아 K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충남의 학생 선수들은 이미 서울로 진학했거나 타 지역으로 진학을 앞둔 상황이다.

반면 경기 양평군은 대한산악연맹 등과 국내외 경기용 클라이밍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협약을 맺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경북 청송군은 빙벽을 오르는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을 열고 산악스포츠의 메카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대

도시로 떠나고 있는 인재 유출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꾸준히 개선을 촉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교육 현장 곳곳에 빈틈이 존재하는 현실에 안타까움만 느낄 뿐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고교 스포츠 클라이밍부 창단 방안 등 선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각급 초·중·고교 실내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 설치 등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계획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암벽여제’로 불리는 ‘제2의 김자인’이나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충남에서도 탄생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인프라 확대에 주력할 때이며, 이를 위해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을 약속한다.

도의회 시군 지역민원상담소 16일부터 본격 운영

도 각지 16개소 운영·개소 앞뒤 도민 생활불편 해결 지원 나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충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한다.

지난달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역민원상담소는 '충청남도 지역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의회 방문이 어려운 도민의 고통 민원을 신속히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내 15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천안엔 3개소, 아산엔 2개소가 들어서며 나머지 지역에는 각 1개소씩 설치된다.

다만 의회 청사와 인접한 예산과 홍성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모두 16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올해 6월부터 설치를 시작해 현재까지 12개소가 문을 열었거나 개소를 앞두고 있다.

충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에선 해

당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위촉직 상담관이 매주 3~5일간 주민으로부터 입법·예산·정책 건의나 지역 현안, 생활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 반영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역민원상담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정'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 하나"라며 "도민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16개소의 '지역민원상담소' 운영으로 의회 방문이 어려운 도민의 고통 민원을 신속히 수렴해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은 개소를 앞둔 충남도의회 서산 지역민원 상담소

충남형 남북교류협력 방안 찾는다

충남 남북교류협력 연구모임 국내 사례 분석, 방향성 등 논의

충남도의회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은 지난 8일 도의회 112호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충남형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

고자 마련했다.

연구모임 소속 의원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충남연구원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 추진경과와 세부항목을 검토하고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교육 현황, 국내 사례 분석 등 충남 실정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 대표인 오인환 의원(논산1)은 "2018년 이후 변화된 대북정책

인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이 남북교류사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모임과 연구용역을 통한 남북교류사업 모델 발굴과 추진 한계 극복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11월 중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결과물을 확인하고 정책 접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지정 도민이 일군 결실"

김명선 의장, 국가균발위의 혁신도시 지정안 의결 환영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심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충남 혁신도시 유지 범도민 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인 김 의장은

이날 "혁신도시 지정은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로 이뤄낸 성과"라며 "혁신도시를 성장 발판으로 환황해권 중심이자 제4차 산업혁명 선두주자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범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혁신도시 완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적십자에 전국시도의장協 재난구호금 전달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3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기탁한 재난구호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전달했다.

전국시도의장협회는 지난달 12일 대전에서 개최한 정기회에서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을 비롯해 8개 시도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구호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기탁금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를 통해 수해피해를 입은 도내 가정 등 재난취약계층 지원과 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번 구호금 지원 결정에 동참해 준 타 시도 의장들께 감사



김명선(사진 왼쪽) 의장은 지난달 23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기탁한 재난구호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전달했다.

드린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수해 피해로 고통

을 겪은 이재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형 돌봄 체계 구축 '순항'

교육위, 추진방향 적정성 검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 입법정책 연구용역인 '충남형 방과 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 방안 기초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위 소속 의원과 정책위 위원,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착수보고회에서 논의한 연구 추진방향과

세부항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효과적 정책 제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조철기 교육위원장(아산3)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충남 특성에 맞는 초등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 대안 도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잡한 특별회계·기금 한눈에

예산분석담당관실 해설서 발간 특별회계·기금 운용 등 도식화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020 한눈에 보는 특별회계·기금'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도의회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발간한 이 책자는 재정 특성상 복잡한 특별회계와 기금 체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책자에는 충남도가 운용 중인 특별

회계·기금별 설치내역과 추이, 운용구조, 세입(수입)·세출(지출) 주요 특징, 관련 법령과 조례 제·개정 동향 등이 담겼다.

특히 재정 구조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 규모와 재원이전 현황을 표와 그림 등으로 도식화했다.

한편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한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충남에서는 8개 특별회계와 14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발간한 특별회계·기금 해설서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습니다.

-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충청남도청 및 충청남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습니다.
- 도민여러분의 제보를 통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평소 보고 느끼신 사항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감사종료 후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처리결과를 알려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제보기간: 2020. 1. 1. ~ 12. 31.

- 제보내용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사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
 -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제보방법
 - 인터넷: 하단의 '도민제보 바로가기'
 - FAX: 041-635-5283 / 문의전화: 041-635-5083
 - 방문 및 우편: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정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우편번호 32416)

-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비밀을 보장합니다.